

고려 대몽전쟁기 海島 관련 전투에 대한 재검토

槽島의 위치 비정과 牙州海島 出陸 전투의 勝敗

윤 경 진*

1. 머리말
2. 槽島의 위치와 全羅道 방면의 전황
 - 가. 西海道 비정 근거 비판
 - 나. 全羅道 방면의 전황과 槽島 방어 전투
3. 牙州海島 出陸 전투의 승패와 성격
 - 가. 牙州海島 出陸 전투의 승패
 - 나. 몽고군의 忠州 공격과 牙州海島
4. 맺음말

1. 머리말

고려는 몽고와 40년에 걸친 전쟁을 치르면서 전술적으로 몽고군에 맞서기 위해 山城 및 海島 入保策을 구사하였다. 산성 입보는 고려초기 거란과 전쟁을 치르면서 사용하던 전통적인 전술이었던 반면, 해도 입보는 몽고 침입 때 처음으로 활용되었다. 이것은 유목

* 경상대학교 사학과 교수

사회에 기반한 몽고군이 현실적으로 선박을 이용한 전술을 구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이용한 것이었다.¹⁾

몽고와 1차 전쟁을 치른 후 고려 정부는 江華遷都를 단행하고 내륙의 군현들도 산성과 해도에 입보하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청천강 이북의 北界 州鎮들이 해도에 입보하였고, 이후 대동강 이북 주진으로 확대되었다.²⁾ 전쟁 후반기에는 양계 외에 南道 군현들의 해도 입보도 이루어졌다.³⁾

산성 입보가 현지에서 그대로 방어전을 치르는 방식이라면, 해도 입보는 현지를 떠나 멀리 떨어진 해도로 들어가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전술 운용의 차이를 수반하였다. 해도 입보의 주된 목적은 군사력을 보존하는 데 있었으며, 필요에 따라 出陸하여 전투를 수행하였다. 자연 산성 입보에 비해 즉각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나 더 장기적인 항전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거점의 직접 방어보다 진로 차단과 같은 선제적 대응의 속성을 띠고 있었다.

그간 대몽전쟁기 해도 입보에 대한 여러 연구를 통해 그 내용이 정리되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남아 있다. 우선 일부 해도 입보 및 그와 연계된 전투에 대해 연구자간의 이견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槽島의 위치와 牙州海島 관련 전투의 勝敗 문제이다. 조도 전투는 고종 42년(1255) 12월 몽고군이 처음으로 남도 지역의 해도를 공격한 것으로, 해도 입보 및 연계 전투를

1) 고려 대몽전쟁기 해도입보책 전반에 대한 고찰로는 다음이 있다.

尹龍燾, 「고려의 海島入保策과 몽고의 戰略變化: 麗蒙戰爭 전개의 一樣相」, 『歷史教育』 32, 1982; 姜在光, 「對蒙戰爭期 崔氏政權의 海島入保策과 戰略海島」, 『軍史』 66, 2008; 姜鳳龍, 「몽골의 침략과 고려 무인정권 및 삼별초의 ‘島嶼海洋戰略’: 그 동아시아적 의의」, 『東洋史學研究』 115, 2011; 姜在光, 「對蒙戰爭期 서·남해안 州縣民의 海島入保抗戰과 海上交通路」, 『지역과역사』 30, 2012; 강재광, 「1255-1256년 槽島·牙州海島 대상지 비경과 海戰의 影響」, 『軍史』 93, 2014.

2) 北界 州鎮의 해도 입보 양상과 이후 연혁 변화에 대해서는 윤경진, 「고려후기 北界 州鎮의 海島入保와 出陸 僑寓」, 『震檀學報』 109, 2010 참조.

3) 南道 지역의 해도 입보는 주로 界首官 단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윤경진, 「고려 대몽전쟁기 南道지역의 海島 入保와 界首官」, 『軍史』 89, 2013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그런데 조도의 위치에 대해서는 西海道 소속으로 보는 견해⁴⁾와 全羅道 소속으로 보는 견해⁵⁾가 나뉘어 있다. 조도는 다른 자료에서 이름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섬으로 비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서해도와 전라도로 달리 보는 것은 단순히 비정의 차이에 그치지 않으며, 해도와 관련된 전황에 대한 이해 차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⁶⁾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아주해도 관련 전투는 고종 43년(1256) 4월 이곳에 있던 고려군이 몽고군을 공격했다가 역습을 당한 전투이다. 아주해도가 어디인가 하는 문제는 그 지역 범위가 특정되어 있어 연구자 사이의 이견 또한 아산만 일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승패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문맥상 고려군의 패전으로 해석⁷⁾되는 이 전투에 대해 일부 연구자는 한쪽이 몰살당한 전투에서 고려 지휘관의 생존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들어 고려의 승전으로 이해하고 있다.⁸⁾ 특정 전투에 대해 승패 판단이 엇갈리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 이 판단은 당시 전투의 성격이나 영향에 대한 이해에도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⁹⁾

4) 강재광, 앞의 논문, 2008, 42쪽 ; 강재왕, 앞의 논문, 2014, 45-47쪽. 강재광은 조도를 椒島에 비정하였다.

5) 尹龍燾, 앞의 논문, 1982, 71쪽 ; 윤경진, 앞의 논문, 2013①, 55쪽. 필자는 위 논문에서 조도를 현재의 智島로 비정한 바 있다.

6) 강재광은 조도를 서해도 지역에 비정하면서 이 전투의 승리로 몽고군의 후방에 대한 역습을 가능케 했고, 한편으로 몽고 수군의 江都 침공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이해하였다(강재광, 앞의 논문, 2014, 58쪽). 조도를 전라도에 비정하면 이러한 해석은 성립하지 않게 된다.

7) 윤용혁, 앞의 논문, 1982, 79쪽 ; 윤경진, 앞의 논문, 2013①, 47쪽.

8) 윤용혁, 「대몽항쟁기 지방민의 피란 입보 사례 : 아산만 연안 지역의 경우」,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000, 77쪽 ; 강재광, 앞의 논문, 2008, 54쪽.

9) 강재광은 아주해도 관련 전투를 고려의 승전으로 해석하면서 그 의의를 天安府

이와 더불어 해도 입보에 연계된 전투의 성격이나 해당 전투와 전체 전황과의 연계성 등에 대해서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두 해도와 관련된 전투를 ‘海戰’으로 지칭하고 있다.¹⁰⁾ 통상 해전이라 하면 두 군대가 바다에서 전함을 타고 전투를 벌이는 것이 중심인데, 두 전투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조도 전투는 몽고군이 배를 건조하여 섬을 공격한 것인데, 이 경우 배는 운송용이지 전투용이 아니다. 몽고군의 선박 이용은 섬으로 들어가는 수단일 뿐이고, 해상에서 전투가 이루어졌다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 몽고군으로서는 섬에 상륙하는 것을 도모한 것이고 고려군은 이를 막는 것이므로 일종의 ‘상륙전’인 셈이다.¹¹⁾

그리고 아주해도 관련 전투는 본문에서 다루겠지만 입보한 고려군이 배를 타고 나와 육지에 상륙한 후 전투를 벌인 것으로 파악된다. 곧 해상이 아니라 육지에서 전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출륙’ 전투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섬과 배가 매개된다는 것만으로 해전으로 보는 것은 당시 몽고군의 전술적 능력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도 맞지 않거니와 당시 전황을 실제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도 장애가 된다.

또한 해당 전투를 전후해 이루어진 다른 전투와의 연계성에 대한 맥락적 이해도 새롭게 도모할 필요가 있다. 조도 전투의 경우 뒤이어 몽고군의 해도 공격에 맞서는 고려의 움직임이 있었다. 따라서 조도

가 입보한 仙藏島의 방어, 공세적 토벌전, 아산만 일대의 조운로 보호 등을 들었다(강재광, 앞의 논문, 2014, 59쪽). 그러나 패전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해석은 모두 무의미해진다.

10) 강재광은 두 전투를 ‘海戰’으로 이해하면서 아주해도의 경우에도 해상 전투로 서술하고 있다(강재광, 앞의 논문, 2014, 52쪽).

11) 押海島 전투는 몽고군이 배를 타고 공격하고, 고려가 大艦에 포를 싣고 이에 대응했다는 점에서 海戰의 요소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당시 고려군은 함포를 이용하여 배의 접근을 막았고, 몽고군은 배의 손상을 우려하여 우회 공격을 도모하다가 여의치 않자 공격을 포기하였다. 몽고군의 전술은 선상에서 압해도나 고려군의 전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상륙을 도모하는 차원이었고, 압해인 또한 몽고군의 상륙을 막는 데 주력하였다. 따라서 압해도 전투 또한 해전으로 보기 어렵다. 앞서 전개된 조도 전투의 경우도 같은 양상이었을 것이다.

전투와 고려의 대응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무관할 수 없다. 당시 고려 정부는 전라도 방면으로 군대를 파견했는데, 이것은 조도의 위치를 비정하는 결정적인 조건이 되며, 당시 몽고군 本陣의 위치 파악과도 연결된다.¹²⁾

그리고 아주해도 관련 전투는 몽고군의 忠州 공격과 하나의 기사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전투의 승패를 판단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는 동시에 당시 전투가 가지는 의미를 가늠하는 준거가 된다. 이 점에서 아주해도 관련 전투는 충주 전투와 연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최근 제기된 조도의 위치 비정과 아주해도 관련 전투의 승패 판단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는 한편, 그 연장에서 그와 연관된 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대몽전쟁사 이해에 일조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조도의 위치 비정 및 그와 연관된 전황을 분석할 것이다. 먼저 조도를 서해도에 비정하는 견해에 대해 서해도 전황에 대한 이해를 매개로 검증 비판하고, 이어 조도 전투에 이어지는 전황을 통해 이곳이 전라도에 비정되어야 함을 확인할 것이다.

2장에서는 아주해도 관련 전투의 승패를 판단하고 그와 연계된 전황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아주해도 관련 전투가 고려군의 패전임을 문맥과 기사 구성 등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승전으로 보는 주요 논거에 대해 반박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전투가 충주 방어와 관련된 것임에 주목하고, 관련된 전황을 통해 당시 전쟁의 구조적 일면을 조명해 볼 것이다.

12) 윤용혁은 몽고군의 해도 공격이 강화 연안에서의 시위와 연계된 것으로 각개 부대의 개별적 전투가 아님을 지적하였다(윤용혁, 앞의 논문, 1982, 76-77쪽). 곧 해도 공격은 몽고군 지휘관이 이끄는 本陣의 작전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강재광도 이러한 방법론에 입각해 조도와 아주해도의 위치를 비정하고 있으나(강재광, 앞의 논문, 2014), 본진과 관련된 전황에 대한 이해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2. 槽島의 위치와 全羅道 방면의 전황

가. 西海道 비정 근거 비판

고려가 강화천도에 이어 해도 입보를 통해 몽고군에 장기전으로 맞서자 몽고군도 도서 공격을 모색하였다. 고종 40년(1253) 몽고屯所에서 永寧공이 崔沆에게 보낸 書狀에는 “몽고의 精兵이 水內와 山城을 나누어 공격하려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¹³⁾ 이것은 당시 몽고군이 해도 공격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¹⁴⁾

그 첫 사례가 고종 42년(1255) 12월의 槽島 공격이었다.¹⁵⁾

몽고군이 배를 만들어 槽島를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¹⁶⁾

몽고군의 조도 공격은 전투 상황에 대한 서술이 없이 결과만 간략히 적고 있고, 조도가 다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그 위치와 전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 조도의 위치에 대해서는 서해도 인근의 椒島로 비정하는 견해¹⁷⁾와 전라도 연안의 현 智島로 비정하는 견해¹⁸⁾가 있다. 이와 같이 비정 지역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조도 전투와 연계된 당시 전황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기

13) 『高麗史』 권129, 列傳42 叛逆3 崔忠獻 附 崔沆 “今也窟等十七大王太子 各領兵馬 抄蒙古漢兒女兒高麗人 屯田南北界 以蒙古精兵 分攻水內山城”

14) 윤용혁, 앞의 논문, 1982, 71쪽.

15) 앞서 고종 41년 2월 몽고군이 북계의 葛島를 침구한 일이 있었다(『高麗史』 권24, 고종 41년 2월 己未 “北界兵馬使報 蒙古兵船七艘 侵葛島 虜三十戶”). 이것이 기록상 해도 침공의 첫 사례이지만, 당시는 몽고군이 철군하던 중이었다. 몽고군은 고종 40년 12월 철군을 시작하였고, 고려는 고종 41년 정월 京城의 戒嚴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갈도 침구는 군사 작전의 일환이 아니라 철군 중이던 일부 몽고군의 노략질을 위한 공격으로 판단된다.

16) 『高麗史』 권24, 고종 42년 12월 壬辰 “蒙兵造船 攻槽島 不克”

17) 강재광, 앞의 논문, 2008, 42쪽.

18) 윤경진, 앞의 논문, 2013①, 53쪽.

때문이다.

조도를 초도로 비정하는 견해는 초도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한 것으로, 명칭의 유사성도 비정의 한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은 제시되지 않았다. 논자 스스로 인정하듯이 자료상 ‘槽島’라고 명시된 것을 초도로 비정하는 것과 조도 전투 이후 대몽전쟁기를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椒島’가 등장하는 것을 난점으로 지적하였다.¹⁹⁾ 그럼에도 조도가 전라도 해안의 도서일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을 내리고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豊川都護府 관할에 椒島가 席島와 함께 등장한다. 석도는 防護別監이 파견된 것에서 입보 해도로 활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논자는 이에 연동하여 초도가 전략 해도로 운용되었고 이 점에서 조도와 같은 섬일 것이라고 추정한 것이다. 그러나 『고려사』에 등장하는 전략 요충으로서 초도의 기능에 대해서는 충위를 달리 보아야 한다.

『고려사』에 보이는 椒島의 용례를 보면, 문종대에는 서해도가 아닌 東界에 속한 초도가 등장한다.²⁰⁾ 이곳은 고려의 船軍이 순행하며 관리하는 곳이었으며, 해적 소탕을 위해 고려의 船兵들이 주둔하다 출격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서해도 소속 초도는 원종대 이후 비로소 등장하는데, 초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제시하는 논거로 채용된 용례는 다음과 같다.

① 北界 別抄 都領郎將 李陽著가 군대를 이끌고 椒島로 옮기려 하니 휘하가 속여 말하기를, “육지에 내려 사냥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고는 마침내 이양저와 京兵을 죽이고 배를 타고 도주하였다.²¹⁾

19) 강재광, 앞의 논문, 2014, 47쪽.

20) 『高麗史』 권8, 문종 22년 6월 庚申 ; 『高麗史』 권8, 문종 22년 7월 丁酉

21) 『高麗史』 권25, 원종 즉위년 7월 庚午 “北界別抄都領郎將李陽著 率兵 將移于椒島 麾下給曰 請下陸而畋 遂殺陽著及京兵 浮海而逃”²¹⁾

② 이에 앞서 林衍이 王이 황제에게 上奏하여 군대를 청해 돌아올 것을 우려하여 이를 막고자 指諭 智甫大로 하여금 夜別抄를 이끌고 黃州에 주둔하고 神義軍은 椒島에 주둔하며 대비하도록 하였다.²²⁾

위의 두 기사는 각각 원종 즉위년(1259)과 원종 원년(1260)의 기사이다. 여기서 초도는 몽고와 강화 교섭이 타결된 후 이에 반대하는 일부 세력이 거점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으로, 대몽전쟁기에 입보처로 이용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당시 인근에는 입보가 이루어졌던 석도가 있었음에도 초도를 택한 것은 강화 교섭 후 입보 해도에서 출륙이 이루어지면서 몽고군의 영향권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남도의 경우 大部島(大府島)에서 이러한 상황을 찾을 수 있다.

窄梁을 防戍하던 몽고군이 大部島에 들어가 주민을 침탈하므로 주민이 매우 원망하였다. 대부도 사람들이 崇謙 등이 봉기한 것을 듣고 마침내 몽고인 6명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다. 水州副使 安悅이 군대를 이끌고 토벌하여 평정하니 안열의 품질을 5품으로 올려주었다.²³⁾

위의 기사는 원종 12년(1271)의 것으로, 窄梁은 강화도를 연결하는 길목에 해당하는 요충이다. 고려 정부의 出陸還都에 따라 몽고군이 이곳을 접수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도까지 내려가 침탈을 자행했는데, 대부도는 고종 말엽 이곳에 입보해 있던 別抄가 출륙하여 몽고군과 전투를 벌인 일이 있었다.²⁴⁾ 여기서 과거 입보가 이루어진 해도를 몽고군이 장악하는 상황을 읽을 수 있는데, 이는

22) 『高麗史』 권104, 列傳17 金方慶 “先是 林衍慮王奏帝請兵還 欲拒之 令指諭智甫大 率夜別抄 屯黃州 神義軍屯椒島 以備之”

23) 『高麗史』 권27, 원종 12년 2월 辛丑 “窄梁防戍蒙古兵 入大部島 侵奪居民 民甚怨之 大部人 聞崇謙等起 遂殺蒙古六人以叛 水州副使安悅 率兵討平之 進悅秩五品”

24)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4월 庚辰 “大府島別抄 夜出仁州境蘇來山下 擊走蒙兵百餘人”

입보한 주민과 군대가 계속 남아 저항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몽고군에 저항할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이 접수하지 않은 섬을 이용해야 했다. 三別抄는 원격하여 몽고군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珍島를 선택했지만, 개경 주변의 경우에는 앞서 입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섬 중에서 조건이 양호한 섬을 활용했을 것이다. 서해도 豊州 연안에서도 입보처로 활용된 席島에 몽고군이 진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이들이 저항 거점으로 선택한 초도는 오히려 이전에 입보처로 활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설사 초도가 입보 해도로 활용되어 고려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곳을 조도로 비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조도 공격은 고종 42년(1255)의 일로, 서해도 초도 용례가 나타나는 원종 즉위년(1259)과 불과 4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거의 같은 시점의 기사에 같은 섬이 서로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논자는 초도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하며 서해도 지역의 섬임에는 틀림없다고 조정하였다.²⁵⁾

그러나 조도를 서해도의 도서로 비정하는 것은 여전히 무리가 있다. 이번에는 당시 전황을 통해 조도가 서해도 연안의 도서일 수 없음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몽고군이 서해도 서부 연안 도서를 공격하는 방식은 지리적 조건을 고려할 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서경 방면을 거점으로 해로를 타고 내려오거나 반대로 해주 방면을 거점으로 올라가 공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해도 서부 연안으로 진출하여 해도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방식 모두 조도 공격 당시까지 몽고군의 전황과는 거리가 있다.

25) 강제광, 앞의 논문, 2014, 47쪽.

먼저 西京과 관련된 전황을 보자. 대동강 하구를 거쳐 서해도 연안으로 진출하려면 서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선박의 확보와 군대 주둔 등에서 거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종 20년(1233) 畢賢甫와 洪福源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정부는 이를 진압하면서 주민을 모두 해도로 소개시켰고, 이로 인해 서경은 폐허가 되었다. 이후 몽고군이 남진할 때 항상 서경을 경유했지만, 기반 시설이 없던 서경은 거점으로 기능하지 못했다.

서경이 몽고군의 거점으로 활용된 것은 고종 46년(1259)의 일이다.

李凝이 西京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王萬戶가 이르기를, ‘너희 나라 왕은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가. 어찌 尹椿과 松山의 말을 듣고 나와 항복하지 않는가. 항복하면 추호도 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당시 왕만호는 10領의 군대를 이끌고 西京 古城을 고쳐 쌓고, 또 전함을 건조하고 屯田을 개간하여 오래 머무를 계획을 삼고 있었다.²⁶⁾

위의 기사에서 몽고군 지휘관 王萬戶는 서경에 오래 머물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성을 수축하고 둔전도 마련하였다. 특히 왕만호는 이곳에서 전함을 건조할 계획도 세웠는데, 이는 이를 기반으로 서해안의 해도를 공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고종 46년(1259)에 이르러 비로소 이러한 계획이 나온 것은 그동안 서경이 몽고군의 거점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이를 거점으로 전함을 동원해 해도를 공격하는 것도 생각하기 어렵다.

이번에는 海州 방면을 보자. 해주와 鹽州 연안을 확보하면 이곳을 통해 배를 타고 나와 서해도 서부 해도 쪽으로 진출할 수 있다.

26) 『高麗史』 권24, 고종 46년 2월 庚子 “李凝 還自西京曰 王萬戶云 汝國王 不愛百姓耶 何聽尹椿松山之言 不出降乎 降則秋毫不犯 時 王萬戶率軍十領 修築西京古城 又造戰艦開屯田 爲久留計”

이러한 상황은 고종 44년(1257)에 비로소 나타난다. 이 해 9월 車羅大가 이끄는 몽고 본진은 염주로 물러나 주둔하였다.²⁷⁾ 이것은 당시 몽고군이 이곳에 미리 거점을 확보해 두었다는 것을 시사한다.²⁸⁾ 이 때를 전후하여 몽고군은 神威島와 昌麟島를 공격했는데, 이는 몽고군이 염주에 거점을 마련하고 이곳이나 인근 해주를 통해 해도 공격에 나선 것을 보여준다.²⁹⁾

하지만 조도 공격이 있던 고종 42년(1255) 당시 몽고군이 이 방면에 주둔하며 거점으로 활용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차라대의 본진은 9월에 西京에 도달하였고, 候騎는 金郊驛에 다다랐다.³⁰⁾ 금교역은 江陰縣에 있으며 개성 북부 외곽에 해당한다. 그리고 10월에 몽고군의 선봉군으로 파악되는 군대³¹⁾가 忠州 大院嶺까지 진출하였다.³²⁾ 불과 18일만에 충주까지 내려간 것이다.

당시 몽고군의 진격 속도는 상당히 빨랐다. 고려의 북계 주진은 모두 해도에 입보한 상태였고, 서해도 경유지의 주요 군현들도 이전에 몽고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고종 18년(1231)에는 平州가 도륙을 당했고,³³⁾ 고종 22년(1235)에는 洞州가 攻破되었다.³⁴⁾ 그리고 고종 30년(1243)에는 서해도 椽山城이 함락되었

27) 『高麗史』 권24, 고종 44년 9월 戊午 “金軾馳報車羅大收兵 退屯塩州 又督還南下 甫波大軍馬”

28) 鹽州는 강화도를 마주보는 서해도 연안에 위치하며, 고종 34년 阿母侃이 이곳에 주둔한 적이 있어(『高麗史』 권23, 고종 34년 7월 “蒙古元帥阿母侃 領兵來屯塩州”), 염주가 江都를 압박하기 위한 거점으로 활용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때에는 해도 공격과 관련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29) 당시 전황에 대해서는 뒤에서 언급할 것이다.

30) 『高麗史』 권24, 고종 42년 9월 丁未 “崔璘與蒙古使六人來 留客使于昇天館 先入奏云 車羅大永寧公 領大兵到西京 候騎已至金郊”

31) 尹龍燾, 『高麗對蒙抗爭史研究』, 一志社, 1991, 114-115쪽.

32) 『高麗史』 권24, 고종 42년 10월 乙丑 “蒙兵踰大院嶺 忠州出精銳 擊殺千餘人”

33) 『高麗史』 권23, 고종 18년 11월 甲辰 “蒙兵以平州囚其持牒者 欲先滅之 庚戌夜未明 突入城中 殺州官 屠其城 盡燒人戶 雞犬一空”

34) 『高麗史』 권23, 고종 22년 10월 辛丑 “蒙兵攻破洞州城”

다.³⁵⁾ 이로 보아 당시 차라대군은 북계는 물론 서해도 방면에서도 큰 저지를 받지 않았고, 개경 방면까지 빠르게 진주했을 것으로 생각된다.³⁶⁾

조도 공격은 12월 30일에 있었다. 몽고군의 서경 도착 후 4개월이나 지난 시점이다. 이 시점까지 차라대의 본진이 서해도 방면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것은 전황상 불합리하다. 고종 43년(1256) 4월에 차라대 본진이 潭陽까지 내려간 것을 보면, 당시 몽고군은 개경을 지나 계속 남진하는 전략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조도 전투 이후 전라도 방면에서 전투가 전개된 것을 보면, 차라대의 본진은 이른 시기에 전라도까지 내려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는 내륙을 통해 서해도 연안으로 진출하여 해도 공격에 나섰다. 가능성을 짚어보자. 서해도는 고려의 도읍인 개경과 서경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다. 여기서 岫嶺(慈悲嶺)을 경유하는 길, 곧 黃州와 鳳州, 洞州를 연결하는 경로가 간선로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내륙 쪽으로 遂安과 俠溪를 경유하는 지름길이 있었으나 험로였다.³⁷⁾

35) 『高麗史』 권24, 고종 40년 8월 戊午 “蒙古兵陷西海道椽山城”

양산성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데, 윤용혁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보이는 安岳郡 楊山城에 비정하되,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하였다(윤용혁, 앞의 책, 1991, 276쪽). 그러나 양산성 전투가 있기 6일 전에 金郊驛에서 전투가 벌어졌고(『高麗史』 권24, 고종 40년 8월 癸丑), 15일 뒤 東州山城이 함락된 것(『高麗史』 권24, 고종 40년 8월 癸酉)을 보면, 양산성은 牛峯 인근 지역일 것으로 추정된다.

36) 강계광은 차라대군의 남하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들어 본진의 전라도 진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강계광, 앞의 논문, 2014, 44쪽), 당시 몽고군의 전황이 모두 자료에 반영된 것은 아니므로 南下에 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이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차라대군이 당시 서해도에 머물렀음을 뒷받침하는 어떤 기록도 없다. 실상 이 시기에 전투 기사가 나오지 않는 것은 몽고군이 특별한 저항을 받지 않고 남진하였음을 반영한다. 특히 서해도의 장기 체류는 후술하듯이 조도 전투 후 한 달 안에 이루어진 고려군의 南下를 설명할 수 없다

37) 윤경진, 「고려 태조대 鎭 설치에 대한 재검토 : 禮山鎭·神光鎭을 중심으로」,

서경을 통과한 몽고군은 곧바로 개경으로 진주하면서 이 경로를 따라 내려갔으며, 이 과정에서 주변의 성들을 공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전술한 平州와 洞州, 椽山城의 전투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몽고군이 서부 연안 방면으로 진출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

조도 공격 이전에는 고종 23년(1236) 몽고군이 信州와 安州까지 진주한 것이 유일한 사례인데,³⁸⁾ 몽고군은 이틀 전 黃州에 들어선 뒤³⁹⁾ 서남쪽에 위치한 신주와 안주까지 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몽고군 주력 부대가 아니라 先鋒으로 나타나며, 신주와 안주 방면에 이른 것일 뿐 실제 이 방면에서 전투를 벌인 것은 아니다.

당시 주력 부대는 8월에 청천강 남부에 위치한 价州에 이르러 고려군과 전투를 벌였다.⁴⁰⁾ 주력 부대가 현 평안남도 북부 일대에 머무는 동안,⁴¹⁾ 선봉군은 충청도의 溫水郡을 거쳐 車峴까지 남하하였다.⁴²⁾ 이들 중 일부는 全州와 古阜 경계까지 내려갔다.⁴³⁾ 곧 당시 전황에서 서해도 서부 방면에서의 전투는 상정되지 않는다.

몽고군의 서해도 서부 지역 공격은 원종 때 비로소 나타난다.

西京의 몽고군이 靑松과 安岳, 豊州, 海州에 난입하여 人物을 노략질하여 가버렸다.⁴⁴⁾

『韓國史學報』 40, 2010.

38) 『高麗史』 권23, 고종 23년 6월 庚子 “(蒙兵)至信安二州”

39) 『高麗史』 권23, 고종 23년 6월 戊戌 “蒙兵先鋒入黃州”

40) 『高麗史』 권23, 고종 23년 7월 辛酉 “蒙兵至价州 京別抄校尉尉景 价州中郎將明俊等 伏兵夾擊 殺傷頗多 取鞍馬弓矢衣服等物”

41) 『高麗史』 권23, 고종 23년 8월 丁酉 “蒙兵陷慈州 副使崔景侯 判官金之佇 股州副使金景禧等 皆被害”

42) 『高麗史』 권23, 고종 23년 8월 丁未 “蒙兵百餘人 自溫水郡南下 趣車懸峴”

43) 『高麗史』 권23, 고종 23년 10월 甲午 “全羅道指揮使上將軍田甫龜報 蒙兵至全州古阜之境”

44) 『高麗史』 권25, 원종 즉위년 7월 己巳 “西京蒙兵 闖入靑松安岳豊海州 驅掠人物而去”

위의 기사는 원종 즉위년(1259) 7월의 것으로, 서경의 몽고군은 전술한 王萬戶의 군대를 가리킨다. 그는 동년 정월부터 서경에 주둔한 것이 확인되며,⁴⁵⁾ 전술한 것처럼 서경에 장기 주둔을 도모하고 있었다. 서경을 통과해 내려갔던 이전과 달리 이곳을 거점으로 삼음으로써 주변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서해도 서부 연안 지역이 본격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몽고군의 전황으로 볼 때 조도 공격이 있었던 고종 42년(1255) 말 당시 몽고군이 서해도 방면에 주둔하면서 이 지역을 공략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것은 조도가 서해도 방면의 해도가 아니라는 이해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조도는 전라도 방면의 해도로 판단되는데, 다음 절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全羅道 방면의 전황과 槽島 방어 전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도는 당시 몽고의 전쟁 양상에 비추어 서해도 연안의 섬으로 보기 어렵다. 이번에는 조도를 전라도 연안의 섬으로 보아야 하는 근거에 대해 당시 전황과 연계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조도를 전라도 연안의 섬으로 보는 일차적인 근거는 조도 공격 이후 이어지는 양국의 전쟁 상황이다. 고종 43년(1256) 고려는 몽고군의 해도 공격에 대한 대응 조치를 강구하였다.

왕이 몽고 군사가 諸島를 공격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將軍 李廣과 宋君斐를 보내 舟師 300명을 거느리고 南下하여 방어하게 하였다.⁴⁶⁾

45) 『高麗史』 권24, 고종 46년 정월 丁卯 “遣刑部侍郎李凝 如西京王萬戶 沙居只屯所”

46)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정월 丁巳 “王聞蒙古兵 謀攻諸島 遣將軍李廣宋君斐

위의 기사는 정월 丁巳일(25일)의 기록이다. 조도 공격이 있었던 壬辰일은 12월 30일이다. 곧 위의 조치는 조도 공격이 있는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정도의 시차는 전례가 없던 해도 공격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보고가 올라오고 그 대응 조치를 마련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그 연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방어를 위해 파견된 이광 등이 해로를 통해 靈光에 이르기까지 32일이 걸린 점도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한다.

한편 이광 등이 영광 방면으로 내려와 몽고군과 대치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李廣과 宋君斐가 靈光으로 달려가 分道하여 공격하기로 약속했는데, 몽고군이 알고 대비를 갖추니 이광은 도로 섬에 들어가고[還入島] 송군비는 笠巖山城에 입보하였다.⁴⁷⁾

위의 기사에 따르면 이광과 송군비는 영광으로 내려와 군대를 나누어 몽고군을 치려고 했으나 몽고군이 이를 알고 대비하자 이광은 도로 섬으로 들어가고 송군비는 笠巖山城에 입보하였다.

이 때 이광이 “還入島”라고 한 것은 앞서 이들이 어느 섬에 들어갔다가 육지로 나온 것이고, 이 섬의 명칭이 이미 앞 기사에서 나왔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들이 먼저 영광으로 내려왔으므로 이 섬은 영광 관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섬이 전년 말에 몽고군이 공격한 槽島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곧 조도는 영광 관할의 섬으로 이곳이 공격을 받아 고려 정부가 舟師를 파견한 것이다. 이들은 섬에 도착한 후 본토로 상륙하여 군대를 나누어 몽고군을 공격하려 했으나 이것이 여의치 않자 일부는 섬으로 돌아오고 일부는 입암산성으로 들어간 것이다.

領舟師三百 南下禦之”

47)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3월 己未 “李廣宋君斐 趣靈光 約分道擊之 蒙兵知而有備 廣還入島 君斐保笠巖山城”

영광 연안에는 많은 섬이 있어 조도가 어느 곳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해안에서 멀지 않고 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곳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때 군현이 설치된 곳이면 그 명칭이 명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조도는 따로 군현이 설치되지 않는 곳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 바로 현 智島이다.

다음에 해도 공격과 몽고군 본진과의 연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배를 이용한 도서 공격은 몽고군이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전술이었다. 따라서 선봉군이나 별동대가 이러한 전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었다. 곧 해도 공격은 몽고 주력군의 차원에서 구사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지역은 지휘관 屯所와 지역적으로 일치할 것이다.

고종 43년(1256) 정월 몽고군의 해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파견된 이광과 송군비 등은 영광으로 내려갔는데, 고려 정부는 그와 동시에 大將軍 愼執平을 차라대의 둔소로 보내 화의를 도모하였다.⁴⁸⁾ 당시 차라대의 둔소는 확인되지 않는다.

고려 정부는 4월에 다시 신진평을 차라대 둔소로 보냈는데,⁴⁹⁾ 5월 신진평은 羅州에서 돌아와 상황을 보고하였다.⁵⁰⁾ 이를 통해 차라대가 나주 인근에 주둔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진평이 나주를 경유한 것은 해로를 통해 오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년 7월 기사에 차라대가 海陽縣의 無等山에 주둔하면서 남쪽 지역을 공격하도록 한 기사가 확인된다.⁵¹⁾

차라대가 押海島를 공격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의 일로 생각된다.

48)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3월 丁巳 “遣大將軍愼執平等于車羅大屯所”

49)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4월 乙亥 “復遣愼執平于車羅大屯所 寄書云 大兵回來 惟命是從”

50)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5월 壬寅 “愼執平 自羅州還言(후략)”

51)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7월 “是月 車羅大屯海陽無等山頂 遣兵一千南掠”

車羅大가 일찍이 舟師 70척을 거느리고 깃발을 성대히 벌여놓고 押海를 공격하려는데, 저와 한 官人으로 하여금 別船을 타고 전투를 독려하게 하였습니다. 압해 사람들이 大艦에 두 砲를 설치하고 기다리니 양측 군대가 대치만 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차라대가 해안을 바라보며 우리를 불러 말하기를 “우리 배가 포격을 받으면 분명 부서져서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고 다시 배를 옮겨 공격하도록 하였는데, 압해 사람들이 따라 움직이며 포를 갖추니 몽고인이 마침내 水攻할 도구들을 철수하였습니다.⁵²⁾

위의 기사는 몽고군의 포로로 있던 尹椿이 崔沆에게 해도 입보의 강점을 설명하는 중에 押海島 전투⁵³⁾를 사례로 든 것이다. 이 기사는 『高麗史節要』에 고종 43년(1256) 6월의 일로 나오고 있어⁵⁴⁾ 차라대가 해양현에 주둔하고 있을 때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 전투는 차라대가 직접 지휘하고 있어 당시 해도 공격이 본진의 작전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주목을 끄는 것은 당시 동원된 배의 규모가 70척에 달했다는 점이다. 이는 몽고군이 대대적으로 선박을 건조한 것을 의미하며, 이는 조도 공격 때 “造船”을 명시한 것과 연결된다. 당시 몽고군은 대규모의 선박 건조를 통해 전라도 연안의 입보 해도를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초 몽고군이 선박 건조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감안하면, 당시 전황은 이들이 선박의 대량 건조가 가능한 지역을 확보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되는 것이 바로 邊山이다. 고려와 몽고의 전쟁이 마무리된 후 몽고는 일본 원정을 준비하며 고려로

52) 『高麗史』 권130, 列傳43 叛逆4 韓洪甫 “車羅大 嘗將舟師七十艘 盛陳旗幟 欲攻 押海 使吾與一官人 乘別船督戰 押海人 置二砲於大艦待之 兩軍相持未戰 車羅大 臨岸望之 召吾等曰 我船受砲 必糜碎不可當也 更令移船攻之 押海人 隨處備砲 故蒙古人 遂罷水攻之具”

53) 압해도 전투는 기사 내용으로 볼 때 양군이 대치만 했을 뿐 실제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다. 이 점에서 전투로 규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일반적인 표현에 따라 ‘압해도 전투’로 부르기로 한다.

54) 『高麗史節要』 권17, 고종 43년 6월

하여금 많은 선박을 건조하게 하였다. 원종 15년(1274)의 조치가 대표적이다.

금년 정월 3일에 엮드려 大船 300척을 건조하라는 朝旨를 받아 바로 조치를 행하여 樞密院副使 許珙을 全州道 邊山에, 左僕射 洪祿迺를 羅州道 天冠山에 보내 재목을 준비하였고, 또 侍中 金方慶을 都督使로 삼았으며 管下의 員將들도 역시 모두 정밀하게 선발했습니다.⁵⁵⁾

위의 기사는 고려가 大將軍 羅裕를 보내 元 中書省에 올린 글로, 황제의 명에 따라 고려가 선박을 건조하는 상황을 전하고 있다. 고려는 全州道 邊山과 羅州道 天冠山에서 자재를 공급하고 있었다. 이곳이 선박 건조에 가장 적합한 자재를 생산하는 곳이었던 것이다.

선박 자재의 공급 기지로서 변산의 유용성은 李奎報의 글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2월에 朝勅을 받들어 邊山에서 벌목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변산은 나라의 材府로서 宮室을 수리하고 영건하느라 벌목하지 않는 해가 없는데 아름답리 나무와 높이 솟은 나무가 항상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벌목 일을 항상 감독하므로 나를 斫木使라 불렀다.⁵⁶⁾

위의 기록은 庚申年, 곧 신종 3년(1200)에 全州의 司錄兼掌書記로 있던 이규보가 朝勅에 따라 변산에서 벌목한 일을 전하고 있다.

변산이 재목 공급지로 주목되는 이유는 다량의 좋은 재목을 산출하는 동시에 바다에 인접해 있어 운반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55) 『高麗史』 권27, 원종 15년 6월 辛酉 “今年正月三日 伏蒙朝旨 打造大船三百艘 卽行措置 遣樞密院副使許珙於全州道邊山 左僕射洪祿迺於羅州道天冠山 備材 又以侍中金方慶 爲都督使 管下員將 亦皆精揀”

56) 『東國李相國集』 前集 권23, 南行月日記 “十二月 奉朝勅 課伐木邊山 邊山者 國之材府 修營宮室 靡歲不採 然蔽牛之大 干霄之幹 常不竭矣 以其常督伐木 故呼予曰斫木使”

좋은 재목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부문으로 건물 영건과 함께 선박 건조를 꼽을 수 있다. 특히 바다를 끼고 있으므로 인근에서 선박 건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몽고군이 전라도로 내려온 후 선박 건조가 가능해진 것은 바로 이 지역을 점령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는 조도 공격 당시 몽고군의 전황과 부합한다. 이렇게 확보된 배를 이용하여 가장 먼저 공격한 곳이 바로 조도였던 것이며, 이후 선박을 다수 확보하게 되자 압해도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을 도모했던 것이다.

몽고군 본진과 해도 공격의 연계성은 고종 44년(1257) 재침 때 서해도 도서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는 데서도 확인된다. 당시 몽고군의 도서 공격은 두 차례 확인된다.

- ① 몽고군이 神威島를 함락하니 孟州守 胡壽가 해를 입었다.⁵⁷⁾
- ② 西海道按察使가 보고하기를, “몽고군 6척이 昌麟島를 침구하니 瓮津縣令 李壽松이 別少를 이끌고 격퇴하였습니다”라고 하므로 이수송에게 7품을 더해 주었다.⁵⁸⁾

위에서 신위도는 그 위치를 알 수 없으며 맹주가 입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창린도는 웅진현 서쪽에 있는 섬으로 『고려사』 지리지 연혁에 따르면 安北大都護府가 입보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위 기사를 통해 웅진현도 함께 입보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당시 전황을 보면, 甫波大가 이끄는 몽고 선봉군은 6월에 개경을 지나⁵⁹⁾ 남경을 거쳐⁶⁰⁾ 稷山에 이르렀고, 고려는 侍御史 金軾을

57) 『高麗史』 권24, 고종 44년 7월 壬寅 “蒙兵陷神威島 孟州守胡壽被害”

58) 『高麗史』 권24, 고종 44년 9월 己巳 “西海道按察使報 蒙兵六船 侵昌麟島 瓮津縣令李壽松 率別抄擊却之 加壽松七品”

59) 『高麗史』 권24, 고종 44년 6월 戊子 “蒙古候兵 入開京 遣將作監李凝 犒之”

60) 『高麗史』 권24, 고종 44년 6월 癸巳 “蒙兵至南京 遣李凝 請退兵 甫波大云 去留在車羅大處分”

둔소로 보냈다.⁶¹⁾ 김식이 돌아와 보고하는 기사에 따르면 차라대는 안북부에 주둔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⁶²⁾

하지만 여기에는 상황 파악에 혼선이 있어 보인다. 김식이 둔소에 도착하기 전날 몽고군은 이미 西京에 이르렀다.⁶³⁾ 그리고 김식이 도착하고 4일 뒤 차라대의 사자가 昇天館에 도착하였다.⁶⁴⁾ 김식이 차라대 둔소에서 돌아와 보고한 것은 이로부터 26일이 지난 뒤이다.

김식의 보고가 있는 이튿날 정부는 다시 永安公 僖를 차라대에게 보냈다. 이 때 차라대는 太子의 入朝를 요구하며 태자가 도착하면 鳳州로 물러나 주둔하겠다고 약속하였다.⁶⁵⁾ 이에 고려는 29일 뒤 다시 김식을 차라대 둔소로 보내 그 뜻을 살피도록 하였다.⁶⁶⁾ 몽고군의 신위도 공격은 바로 이 때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9월에 김식은 차라대가 군대를 거두어 염주로 물러나 주둔하였다는 것과 남하한 보파대의 軍馬를 돌리도록 지시하였다고 보고하였다.⁶⁷⁾ 그리고 11일 뒤에 창린도 공격이 있었다.

결국 김식은 차라대 본진이 안북부에 있을 때 출발했으나 그 사이 차라대는 서경을 거쳐 훨씬 남쪽으로 내려와 있었던 것이다. 이들이 퇴각하며 처음 주둔한 곳이 염주로 되어 있으므로 당시

61) 『高麗史』 권24, 고종 44년 6월 乙未 “蒙兵至稷山 遣侍御史金軾 詣屯所 請客使三人來”

62) 『高麗史』 권24, 고종 44년 7월 壬申 “金軾自車羅大屯所安北府還云 車羅大曰 王若親來 我卽回兵 又令王子入朝 永無後患”

63) 『高麗史』 권24, 고종 44년 6월 辛亥 “西北面兵馬使報 蒙古軍至西京”

64) 『高麗史』 권24, 고종 44년 7월 丙辰 “車羅大使佐十八人 到昇天館”

65) 『高麗史』 권24, 고종 44년 7월 癸酉 “永安公僖 自車羅大屯所還云 車羅大問曰 何爲來 對曰 大人召還南下軍兵 且禁侵蹂禾穀 國王喜甚 遣臣奉一觴 車羅大曰 太子到日 當退屯鳳州”

66) 『高麗史』 권24, 고종 44년 7월 壬寅 “復遣金軾 賫酒果銀幣獮皮等物 如車羅大屯所 餞之 以觀其意”

67) 『高麗史』 권24, 고종 44년 9월 戊午 “金軾馳報車羅大收兵 退屯塩州 又督還南下 甫波大軍馬”

차라대는 적어도 개경이나 강화도 연안까지 내려왔을 것이다.

이 시기에 몽고군이 해도를 공격한 것은 강화도의 고려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미 2년 전부터 선박을 건조하고 해도 공격을 도모하였기 때문에 고종 44년(1257)에는 서해도 해도 공격까지 가능했던 것이다. 이곳에 대한 공격은 서해도 서부 지역을 지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염주 방면에서 올라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몽고군의 서해도 해도 공격은 앞서 전라도 연안 해도 공격의 경험과 당시 확보된 선박 기술을 토대로 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몽고군은 강도 정부에 더 강한 압박을 가할 수 있었고, 이것이 결국 강화 교섭의 타결로 이어지는 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조도 공격을 포함하여 고종 42년(1255)에서 이듬해까지 이루어진 몽고군의 해도 공격은 전라도 연안 지역에서 진행되었으며, 서해도 연안 도서는 고종 44년(1257)에 비로소 공격을 도모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조도는 입보가 가능한 규모와 연안에서 멀지 않은 위치 등의 조건을 감안하면 현 智島에 비정할 수 있다.

3. 牙州海島 出陸 전투의 승패와 성격

가. 牙州海島 出陸 전투의 승패

대몽전쟁기 해도 관련 전투 중에서 牙州海島 관련 전투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전투와 관련하여 牙州海島가 어디인가 하는 비정 문제와 더불어 勝敗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전후 전투와의 연계성과 전투의 형태 및 성격 등에 대해서도 다시 짚어 볼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전투 승패를 판단하기 위한 분석을 진행하고, 이어 이를 승전으로 보는 견해의 주요 논지를

비판함과 아울러 전투의 성격과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아주해도 관련 전투에 대한 기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忠州道巡問使韓就 在牙州海島 以船九艘 欲擊蒙兵 蒙兵逆擊 盡殺之⁶⁸⁾

위의 기사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패전론) 충주도순문사 한취가 아주해도에 있으면서 배 9척으로 몽고군을 치려고 했으나 몽고군이 되받아쳐 모두 죽었다.⁶⁹⁾

② (승전론) 충주도순문사 한취가 아주해도에 있으면서 배 9척으로 몽고병을 치고자 하였는데, 몽고병이 되받아쳐 오므로 (한취 휘하 고려군이) 그들을 모두 죽였다.⁷⁰⁾

아주해도와 관련된 전투를 패전으로 보는 경우에도 문맥상 해석은 ①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逆擊”과 “盡殺之”의 주어가 바뀌기 때문에 승전론의 해석은 대단히 어색하게 된다. 그럼에도 승전으로 이해하는 것은 한취의 생존을 비롯한 당시 전황과 관련된 이해가 깔려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일단 한문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 정황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하지만 문법적 요소를 뛰어 넘어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어가 생략되었다고 추정되는 경우, 문법적인 관계에 유의해야 한다. 위의 경우도 일차적으로 문법적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68)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4월 庚寅

69) 윤용혁, 앞의 논문, 1982, 79쪽 ; 윤경진, 앞의 논문, 2013①, 46쪽.

70) 윤용혁, 2000 대몽항쟁기 지방민의 피란 입보 사례 : 아산만 연안 지역의 경우,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77쪽; 강제광, 앞의 논문, 2008, 54쪽; 강제광, 앞의 논문, 2014, 48쪽.

윤용혁은 처음에는 고려군의 패전으로 해석하였으나 입장을 바꾸어 승전으로 고쳐 이해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欲’이라고 하는 표현이다. 이것은 어떤 일을 하고자 했다는 의도 내지 목적을 나타낸다. 이 때 뒤에 나오는 내용은 대개 둘 중 하나가 된다. 하나는 순접 관계로 “A를 하기 위해서 B를 했다”고 해석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欲’의 수식을 받는 부분에 대해 그 뒤에 나오는 행동이 의미상 선행하게 된다. 다시 말해 “欲A, B”의 구문이라 할 때, A를 위해서 B를 하는 것이므로 “실현된 A”는 B의 결과가 되어 시간적으로 뒤가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역접 관계로 “-하려고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는 형태의 구문이다. 이 경우 ‘欲’의 수식을 받는 부분보다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의미상 뒤가 된다. 곧 “欲A, B”에서 A는 실현되지 않았고 대신 B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상 B가 뒤가 되는 것이다.

위에 인용된 구문을 대입하면 A는 고려군이 몽고군을 공격하려고 한 것이고, B는 몽고가 역습하면서 전투가 벌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구문은 B가 시간적으로 뒤가 되므로 문법 관계는 역접의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해 A로 표현된 목적은 실현되지 않고 그와 다른 결과가 빚어진 것이다. 이러한 문법적 관계를 고려하면 이 전투는 고려의 공격 의도에 반하는 결과, 곧 고려군이 몰살당하는 ‘패전’이 되는 것이다.

이 전투가 패전이라는 것은 문법적인 해석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위의 인용문이 해당 기사 의 本文이 아니라는 점이다. 위 인용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충주도순문사 한취가 아주해도에 있으면서 배 9척으로 몽고군을 치려고 했으나 몽고군이 되받아쳐 모두 죽였다. ② 몽고군이 忠州로 들어가 州城을 도륙하고 또 山城을 공격하니 官吏와 老弱이 저항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하여 月嶽神祠에 올랐는데, 홀연히 운무가 끼고 비바람과 우박이 함께 일어났다.

몽고군이 신의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공격하지 않고 물러갔다.⁷¹⁾

위의 기사는 고종 43년(1256) 4월 庚寅일의 것으로, 내용은 둘로 나뉜다. ①은 전술한 아주해도 관련 전투이고, ②는 몽고군의 충주성 공격에 대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것이 하나의 전황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아주해도 관련 전투를 고려군의 승전으로 본다면 몽고군이 몰살당한 것인데, 바로 이어 몽고군이 충주성을 공격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한 날짜에 하나로 정리된 기사에 나오는 몽고군이 서로 다른 존재라고 볼 수는 없다. 전황이 여러 곳에서 전개되었고 이것이 취합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당시 아주해도 관련 전투와 충주성 전투가 서로 별개라고 볼 만한 관련 전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아가 서로 다른 전황을 한 기사로 이어서 정리하는 것도 무리가 느껴진다.

따라서 이 기사에서 몽고군은 건재한 것이고, 몰살당한 것은 고려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승전론은 위 기사를 둘로 나누고 후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전자만으로 상황을 이해한 데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⁷²⁾

여기서 추가로 지적할 점은 아주해도 관련 전투 또한 ‘해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섬과 배가 등장하여 ‘해진’ 내지 도서 관련 전투로 보고, 충주성 공격은 산성 관련 전투로 봄으로써 연구자들이 초기

71)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4월 庚寅, “忠州道巡問使韓就 在牙州海島 以船九艘 欲擊蒙兵 蒙兵逆擊 盡殺之 蒙兵入忠州 屠州城 又攻山城 官吏老弱 恐不能拒 登月嶽神祠 忽雲霧 風雨雨雹俱作 蒙兵以爲神助 不攻而退”

72) 『高麗史』와 달리 『高麗史節要』에는 이들이 별개 기사로 나뉘어 있어 이러한 오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高麗史節要』의 기사도 대부도별초의 출륙 전투와 아주해도 출륙 전투, 그리고 몽고군의 충주 함락이 나란히 정리되어 있어 하나의 연속된 전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단계에서 양자를 분리했던 것이다. 그러나 후술하듯이 당시 전투는 고려군이 선박을 타고 섬에서 육지로 나와 몽고군과 전투를 벌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도 공격 이후 몽고군이 선박을 동원하고 있다고 해서 이들이 승선한 상태에서 고려와 전투를 벌였다고 볼 수는 없다. 몽고군에게 선박은 섬에 상륙하기 위한 이동 수단일 뿐이며, 당시 몽고군의 전술적 상황에서 ‘해상’ 전투를 벌인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압해도 전투의 경우도 몽고군은 상륙을 도모했을 뿐 선상에서 어떤 공격 행위도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아주해도 관련 전투에서 몽고군이 배를 타고 나와 고려군의 상륙 이전에 전투를 벌였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고려군이 해도에 입보해 있다가 유사시에 출륙하여 전투를 벌인 예로는 아주해도 관련 전투보다 조금 앞서 이루어진 大府島別抄의 전투 사례를 찾을 수 있다.

大府島別抄가 밤에 仁州 지경의 蘇來山 아래로 나와 몽고군 100여 인을 공격하여 쫓아버렸다.⁷³⁾

위의 기사는 해도에 입보한 상황에서 고려군이 수행한 전투 형태를 잘 보여준다. 대부도에 있던 별초는 밤에 인주 지경의 소래산⁷⁴⁾ 아래로 나와 몽고군을 공격하였다. 이 전투는 상륙하여 육지에서 이루어진 기습 공격이다. 10일 뒤에 발생한 아주해도 관련 전투도 이와 동일한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주해도 관련 전투 또한 고려군이 배를 타고 나와 상륙한 뒤 몽고군을 공격하려다가 역습을

73) 『高麗史』 권24, 고종 43년 4월 庚辰 “大府島別抄 夜出仁州境蘇來山下 擊走蒙兵百餘人”

74)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소래산은 仁川都護府(仁州)의 鎭山으로 府 동쪽 24리에 있다.

당한 것이다. 전술한 槽島 전투에서 정부가 파견한 李廣 등이 일단 섬에 들어갔다가 출륙하여 몽고군과 전투를 벌이려 한 것도 같은 양상이다.

이번에는 승전론의 주요 논지와 연관하여 전투의 성격에 대해 짚어보기로 하자. 아주해도 출륙 전투가 고려의 승전으로 오인된 주 이유는 지휘관으로 파악되는 韓就가 이 전투 이후에도 생존했기 때문이다. 韓就는 원종 4년(1263) 大司成으로 몽고에 사신으로 간 사실이 확인된다.⁷⁵⁾ 고려군이 몰살되었다면 한취도 죽었을 것이므로, 그가 살아 있다는 것은 곧 고려가 승전했다는 논지인 것이다. 더불어 최소한 그가 패전의 책임을 져야 하므로 징계 기사가 나와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⁷⁶⁾

그러나 당시 한취가 군대를 인솔하여 전투를 지휘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일단 한취가 군대를 인솔했다면 문법적으로 “以船九艘”에서 ‘以’가 아니라 ‘率’이 나오는 것이 타당하다.⁷⁷⁾ 또한 전투에서 지휘관이 군대를 이끌고 싸우다 전사한 경우, 그 사실을 밝히는 경우가 많다.⁷⁸⁾ 따라서 위 구문으로 한취의 생사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 하거나 이를 근거로 승전을 논할 수는 없다.

또한 한취에 대해 “牙州海島에 있으면서[在]”라고 명시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가 주어로 설정된 구문에서 그 소재지를 명시한 것은 그가 군대를 이끌고 나와 전투한 것이 아니라는 것, 곧 해도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군대만 보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75) 『高麗史』 권25 원종 4년 10월 壬戌 “遣大司成韓就 如蒙古賀正 兼謝賜羊”

76) 강제광, 앞의 논문, 2014, 49쪽.

77) 다음은 그러한 문법적 구성의 예이다.

『高麗史』 권7, 문종 4년 정월 己丑 “上年十月 海賊 奪鎮溟兵船二艘而去 兵馬錄事文揚烈 卽率兵船 與元興都部署判官宋齊罕 追至賊穴 焚蕩蘆舍 斬賊二十級而還 其功可賞”

78) 다음은 그러한 구문의 예이다.

『高麗史』 권1, 태조 11년 정월 乙亥 “元尹金相 正朝直良等 將往救康州 經草八城 爲城主興宗所敗 金相死之”

직접 군대를 끌고 나왔다면 대부도별초의 경우처럼 ‘出’이 명시되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巡問使의 기능 및 한취의 역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려군이 승전한 것으로 보는 이유가 순문사 한취가 생존했다는 점이고, 이는 한취가 실제 군대를 지휘해 전투를 수행했다는 기능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⁷⁹⁾ 과연 당시 순문사가 군대의 전투 지휘를 수행했는지, 아니면 그와는 다른 차원의 기능을 담당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취가 전투 지휘를 한 것이 아니라면 한취의 생사를 두고 승패를 가늠하는 것은 무의미해진다. “아주해도에 있다”는 표현에서 이미 그가 전투를 지휘한 것이 아님을 판단할 수 있지만, 순문사의 직제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아주해도 출륙 전투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

고려 후기 순문사의 첫 사례는 고종 14년(1227) 金希碑가 全羅道 巡問使에 임용된 것이다.⁸⁰⁾ 그러나 임용 사실만 나올 뿐 활동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 기능을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그가 참소로 崔怡에게 화를 입을 때 羅州에 있었던 것으로 나와 전라도 지역을 순행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아울러 순문사가 특별한 기능을 수행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어 고종 30년(1243) 巡問使 파견 기사가 보인다.

79) 吳宗祿은 고려말 都巡問使의 연원으로서 고종대 순문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임시적 사행이지만 해도 입보를 지휘하는 등 군사적 기능을 띤 것으로 보았고, 한취에 대해서도 전투를 지휘한 것으로 이해하였다(吳宗祿, 「高麗末의 都巡問使 : 下三道의 都巡問使를 中心으로」, 『震檀學報』 62, 1986, 305쪽). 하지만 고려말 도순문사의 군사적 기능을 전제로 초기의 순문사에 대해 동일한 기능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제도의 일반적 양상을 고려할 때, 순문사 또한 상황 변화에 따라 기능이 바뀌게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80) 『高麗史』 권103, 列傳16 金希碑

諡道에 巡問使를 보냈다. 閔曦를 慶尙州道에, 孫襲卿을 全羅州道에, 宋國瞻을 忠淸州道에 보냈다.⁸¹⁾

위의 경우도 순문사의 기능이나 활동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파견 지역은 안찰사 관할 지역과 일치한다.

당시 안찰사는 道 단위의 감찰관으로 확립되어 연 2회 상시적으로 운용되었다.⁸²⁾ 이에 대해 巡問使는 필요에 따라 파견되는 別命使臣(別銜)의 하나로서 그 기능 또한 파견 목적과 상황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당초 道 단위로 설정되는 제반 업무는 안찰사가 수행하는 것이지만, 자연 재해나 전쟁과 같은 비상 상황, 혹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형태의 별명사신을 보내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 경우 별명사신은 특정한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지만, 안찰사와 중복되는 기능을 가진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원리는 명종 때 파견된 察訪使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찰사는 의종대에 이르면 5道按察使로 확립되었다.⁸³⁾ 이후 7道按察使로 운영되기도 하고⁸⁴⁾ 이름도 提察使, 按廉使 등으로 바뀌었지만, 그 기본적인 운영체계는 고려말 都觀察黜陟使로 개편될

81) 『高麗史』 권23, 고종 30년 2월 戊辰, “遣諸道巡問使 閔曦于慶尙州道 孫襲卿于全羅州道 宋國瞻于忠淸州道”

82) 按察使의 직제와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가 참고된다.

河炫綱, 「高麗 地方制度의 一研究(上·下) : 道制를 中心으로」, 『史學研究』 13·14, 1962(『韓國中世史研究』, 一潮閣, 1988); 邊太燮, 「高麗按察使考」, 『歷史學報』 40, 1968(『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1977); 金潤坤, 「麗代 按察使制度의 成立」, 『嶠南史學』 1, 1985; 박종진, 「고려시기 안찰사의 기능과 위상」, 『東方學志』 122, 2003; 윤경진, 「고려 按察使의 연원과 ‘五道按察使’이 성립」, 『韓國文化』 61, 2013②; 윤경진, 「고려시대 按察使의 기능에 대한 재검토 : 군사 및 사법 기능을 중심으로」, 『韓國文化』 65, 2014.

83) 윤경진, 앞의 논문, 2013②.

84) 『高麗史』 권77, 志31 百官2 外職 勸農使 “明宗三年 七道按察使[慶尙州道 晉陝州道 全羅州道 忠淸州道 楊州道 西海道 春州道] 五道監倉使[北界雲中道 興化道 東界溟州道 朔方道 沿海道] 皆兼勸農使”

때까지⁸⁵⁾ 유지되었다.

그런데 명종 8년(1178) 안찰사와 별도로 찰방사가 파견되어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고 관리와 奉使者의 黜陟을 행하도록 하였다.⁸⁶⁾ 이러한 활동은 안찰사의 고유 업무와 중복된다. 곧 기존 안찰사만으로 효과적인 감찰이 어렵다고 보고 찰방사를 추가로 파견하여 감찰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 기존의 안찰사까지 감찰 대상에 포함되었다.⁸⁷⁾

이렇게 보면 순문사는 안찰사와 별도로 파견된 별명사신이라는 점에서 그 기능이 명종 때의 찰방사와 맥이 닿는다. 고종 40년(1253) 순문사 파견 기사에서 그러한 기능적 관계를 읽을 수 있다.

北界兵馬使가 “몽고군이 이미 鴨綠江을 건넜습니다”라고 보고하니, 바로 5道按察 및 3道巡問使에게 移牒하여 주민을 다그쳐 산성과 해도에 입보하도록 하였다.⁸⁸⁾

위 기사에는 안찰사와 순문사에 부여된 임무가 나타난다. 이들은 정부의 통첩을 받아 주민들을 산성과 해도에 입보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때 안찰사나 순문사가 직접 주민을 인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수령에게 통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을 것이다.

이러한 운영원리는 宋國瞻이 慶尙州道巡問使로 활동한 사례를

85) 『高麗史』 권77, 志31 百官2 外職 按廉使, “辛昌八月 以按廉秩卑 改爲都觀察黜陟使 以兩府大臣爲之 賜教書斧鉞 以遣之”

86) 『高麗史』 권19, 명종 8년 정월 丁巳 “分遣察訪使 (중략) 問民疾苦 黜陟官吏及奉使者 限十年以前 追論殿最 凡被劾者 八百餘員 孝著以考覈不精 免”

87) 김아네스는 정기적으로 파견된 按察使가 지방행정 업무로 인해 감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부정기적으로 察訪使를 보내 감찰 기능을 보완한 것으로 이해하였다(김아네스, 「高麗時代의 察訪使」, 『韓國史研究』 82, 1993, 10-11쪽).

88) 『高麗史』 권24, 고종 40년 7월 甲申 “北界兵馬使報 蒙兵渡鴨綠江 卽移牒五道按察及三道巡問使 督領居民 入保山城海島”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⁸⁹⁾

① 刑部尙書로 나가 慶尙道巡問使가 되었는데, 崔怡에게 글을 보내 崔沆의 일을 논하니 崔怡가 그렇다고 여겼으나 다시 崔沆이 참조하여 國瞻을 東京副留守로 좌천시켰다.⁹⁰⁾

② (庾碩이) 뒤에 安東都護副使가 되었다. 이 때 巡問使 宋國瞻이 유석에게 공문을 보내 산성을 수축하도록 하고, 또 공문을 보내 判官 申著와 함께 의논하도록 하였다. 신저는 평소에 貪汚하여 유석이 함께 일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는데, 공문으로 온 일은 모두 신저에게 맡기고 날마다 儒士와 더불어 시를 읊을 따름이었다.⁹¹⁾

위의 두 기사를 통해 송국침이 崔怡 집권기에 慶尙州道巡問使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②에는 그가 산성 수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것이 나타나 있다. 그 형태를 보면,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수령에게 공문을 보내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원리는 안찰사의 일반적인 업무 형태와 동일하며, 산성 및 해도 입보도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한취가 아주해도에 있으면서 군대를 보내 몽고군을 공격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순찰관이었던 한취는 아주해도에 상주한 것이 아니라 순행 중에 아주해도에 와서 머물렀으며, 이곳에서 군대 징발 및 파견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이것은 물론 산성 수축처럼 정부의 통첩에 따른 것이며, 수령이나 실무진에 지시가 전달되는 형태였을 것이다.

89) 이외에 다음 두 사례가 더 보이지만, 구체적인 업무는 확인되지 않는다. 『高麗史』 권102, 列傳15 李純孝 “高宗朝 累官至全羅道巡問使”; 『高麗史』 권103, 列傳16 金希禪 “明年 出爲全羅道巡問使”

90) 『高麗史』 권102, 列傳15 宋國瞻 “由刑部尙書 出爲慶尙道巡問使 寄書於怡 論沆事 怡然之 復以沆之譜 貶國瞻東京副留守”

91) 『高麗史』 권121, 列傳34 良吏 庾碩 “後爲安東都護副使 時巡問使宋國瞻 移牒於碩 令修山城 又牒與判官申著同議 著素貪汚 碩恥與共事 所牒事皆委著 日與儒士嘯咏而已”

순찰관으로서 한취의 업무 수행은 다음 기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金周鼎이) 음서로 富城尉가 되었다. 이 때 몽고군이 크게 이르러 나라가 놀라고 소요하였는데, 김주정이 조치를 사리에 맞게 하니 위엄과 은혜가 모두 두드러져 한 지역이 칭송하였다. 巡問使 韓就가 그를 천거하여 權知都兵馬錄事가 되었다.⁹²⁾

위에서 金周鼎은 몽고의 침입 당시 富城縣尉로 재임하면서 민심 안정에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이에 순문사 한취가 그를 정부에 천거하여 權知兵馬錄事가 되었다는 것이다.

김주정이 부성현위로 재임하던 시기는 분명치 않지만, 별명사신인 순문사의 재임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취가 순문사로 재임한 것이 확인되는 고종 43년(1256) 즈음이 될 것이다. 곧 아주해도의 출륙 전투와 관련된 업무와 김주정 천거는 같은 시기 한취의 순문사 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지방 관리에 대한 褒貶은 안찰사의 고유 권한 중 하나인데, 순문사가 동일한 기능을 행한 것은 순찰관들이 대체로 순행 기간 중 백성의 생활상과 관리들의 근무 상황을 살펴보게 되는 것과 관련된다. 한취가 순문사로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관내를 순행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직임으로서 수행한 아주해도 출륙 전투에 대해서도 순찰관으로서의 역할과 연계하여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안찰사의 기능에 준하여 접근할 수 있다. 안찰사의 군사 관련 기능에 대해서는 군사 지휘와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지만,⁹³⁾ 근래의 검토에 따르면 안찰사의 군사적 기능은

92) 『高麗史』 권104, 列傳17 金周鼎 “以蔭 調富城尉 時蒙兵大至 國家驚擾 周鼎措置得宜 威惠並著 一方稱之 巡問使韓就薦之 權知都兵馬錄事”

93) 박종진, 앞의 논문, 2003.

군대를 징발하는 調兵과 이들을 인솔하여 전투 지역의 지휘관에게 넘겨주는 引兵에 주안점이 있었으며, 돌발 상황이 아닌 한 실제 전투를 지휘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지적되었다.⁹⁴⁾ 안찰사와 순문사가 주민의 해도 입보를 주도한 것도 인적 동원이라는 점에서 군사 운용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순문사 한취의 활동도 이와 같은 맥락을 띠고 있다. 군사의 출동은 원칙적으로 중앙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출동 후 전개되는 일련의 전투는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수행되겠지만, 주력 부대가 특정 지점에 대한 공격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히 군사 지휘체계를 통해 시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취는 순문사로서 해도 입보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함과 아울러 입보 도서의 군대에 대해 정부의 출동 명령을 전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경상주도순문사 송국침이 산성 수축과 관련하여 안동의 부사에게 통첩한 것과 같은 원리이다. 이 과정에서 순문사 한취는 군대 상황을 점검하고 부대를 차출하여 파병하는 단계까지 담당한 것이며, 출동 후 부대의 인솔과 전투는 해당 지휘관이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명에 따라 출병을 시달하고 그에 대한 업무를 순문사가 지휘했기 때문에 아주해도 출륙 전투 기사에 한취가 출병 주체로 제시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주 해도에 있으면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실제 군대를 이끌고 출륙하여 전투를 수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고려군의 몰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의 명에 따라 출병 업무를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패전의 책임을 질 이유도 없는 것이다.

94) 윤경진, 앞의 논문, 2014.

나. 몽고군의 忠州 공격과 牙州海島

앞에서는 아주해도 출륙 전투가 고려군의 패전임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번에는 이 전투가 당시 전황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대한 단서는 군대를 파견한 주체로 나오는 한취의 직함이 忠州道巡問使라는 점과 고려군을 섬멸한 몽고군이 곧바로 忠州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곧 아주해도 출륙 전투는 충주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전투는 대몽전쟁기 충주의 전황과 연계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⁹⁵⁾

먼저 한취의 직함에 대해 짚어 보자. 충주도순문사 韓就의 실제 직함은 忠淸州道巡問使일 가능성이 높다.⁹⁶⁾ 그가 천거한 金周鼎은 富城縣의 尉였고, 부성현은 界首官 淸州 관할에 속한다. 그가 忠州道라는 범위만 관할했다면, 부성현은 그 관할 밖이 된다. 부성현까지 관할에 넣고 있었다면 그는 충주도와 청주도를 아울러 담당한 것이며, 이 경우 정식 직함은 충청주도순문사가 된다.

그렇다면 그의 직함이 충주도순문사로 기재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아주해도 출륙 전투에 이어 충주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것과 관련된다. 전술한 것처럼 아주해도에서 출륙한 고려군을 몰살한

95) 충주의 전황에 대해서는 윤용혁의 연구에서 각 전투별로 그 내용이 개괄된 바 있다(윤용혁, 앞의 책, 1991). 또한 필자도 牙州海島와 관련하여 忠州의 전황을 언급하였으나(윤경진, 앞의 논문, 2013①), 계수관 단위의 海島 入保를 논하는 차원이었다. 본고에서는 당시 전황이 아주해도 출륙 전투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96) 윤용혁, 앞의 책, 2000, 87쪽 ; 강재광, 앞의 논문, 2014, 49쪽.
윤용혁은 忠州道가 충청도를 가리킨다고 본 것으로 직함 자체에 대해 지적한 것은 아니다. 필자는 앞서 韓就가 界首官 충주를 단위로 파견된 巡問使로 이해하였으나(윤경진, 앞의 논문, 2013①, 47쪽) 한취의 본래 직함은 忠淸州道巡問使로 고쳐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그의 아주해도 출륙 전투 관련 업무는 계수관 충주와 국한된다고 보는 것은 동일하다.

몽고군은 충주 공략에 나섰다. 이것은 당초 몽고군이 충주를 공격 목표로 진군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고려군은 몽고군의 충주 진격을 막기 위해 출륙한 것이다.

충주와 아산만 지역은 신라 이래로 중요 교통로로 연결되어 있었다. 경주에서 소백산맥을 넘어 해로로 나아갈 때 가장 가까운 경로는 鷄立嶺을 넘어 충주를 거쳐 아산만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아산만에 인접한 唐項城은 對唐 교통로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였고,⁹⁷⁾ 흥덕왕 때에는 이곳에 唐城鎮을 설치하기도 하였다.⁹⁸⁾

이러한 지형학적 특성에 비추어 당초 충주 관할 군대가 아주해도에 입보해 있었으며, 충주 방면의 방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몽고군이 실제 충주 공략에 나서자 입보해 있던 군대가 나와 이를 막으려다가 역습을 당했던 것이다. 한취가 충청주도순문사가 아니라 충주도순문사로 나오는 것은 바로 그가 충주 관할 군대의 發兵을 담당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충주도는 충청주도의 범위에서 계수관 충주를 단위로 이루어지는 운영체계를 나타낸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군사 운용이었다. 고려에서 지방군 운영체계는 외관을 매개로 설정된 軍事道를 단위로 정액이 설정되었지만, 실제 작전에 동원되는 군사는 계수관을 단위로 편성되었다.⁹⁹⁾

충청주도순문사 한취는 순행 업무에서는 충청주도를 포괄했지만, 군사 운용에 대한 업무에서는 충주도와 청주도가 구분되었기 때문에 충주도 관련 업무에서는 직함이 충주도순문사로 나타나게 된

97) 신라 헌덕왕 때 唐에 사신으로 파견된 金昕은 唐恩浦를 경유하였다(『譯註韓國古代金石文』Ⅲ, 聖住寺朗慧和尚碑 “泊長慶初 朝正王子昕 艤舟唐恩浦 請寓載許焉”). 당은포는 唐恩縣(唐城縣)의 포구로서 아산만으로 나아가는 통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98)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興德王 4년 2월 “以唐恩郡爲唐城鎮 以沙滄極正往守之”

99) 윤경진, 앞의 논문, 2004, 35-41쪽.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다음 두 기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① 全羅抄軍別監 洪溥가 급히 보고하기를, “全州의 軍馬가 작년 12월 26일에 서둘러 출발했으나 5일을 행군한 뒤 전주로 돌아와 난을 일으켜 長吏를 죽이거나 내쫓고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로 인해 羅界軍도 출발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다.¹⁰⁰⁾

② 금년 정월 3일에 엮으려 大船 300척을 건조하라는 朝旨를 받아 바로 조치를 행하여 樞密院副使 許珙을 全州道 邊山에, 左僕射 洪祿適을 羅州道 天冠山에 보내 재물을 준비하였습니다.¹⁰¹⁾

①은 고종 4년(1217) 기사로서 全州에서 군인들이 일으킨 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契丹遺種의 침입으로 이를 토벌하기 위해 군대를 차출한 것인데, 전주의 軍馬가 출발한 지 5일 후 전주로 돌아와 난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羅界軍도 출발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내용은 全羅抄軍別監이 보고하고 있다. 그의 직함에서 그가 전라도에서 군대를 징발하기 위해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지시에 따라 징발된 군대는 全州와 羅州에서 각각 출발하게 되었는데, 羅界軍은 계수관 나주 관할의 군대를 가리킨다. 난을 일으킨 全州軍馬는 바로 계수관 전주 관할 군대로서 羅界軍에 상응하여 ‘全界軍’으로 지칭할 수 있다.

여기서 抄軍을 담당한 別監은 전라도를 대상으로 파견되었지만, 실제 군대 징발 업무는 계수관 전주와 나주로 나뉘어 수행된 것이다. 이 경우 계수관 전주 관할만 대상으로 하면 全州道, 나주 관할만 대상으로 하면 羅州道가 설정되고, 각각의 업무를 준거로 보면

100) 『高麗史』 권22, 고종 4년 정월 庚寅 “全羅抄軍別監洪溥 馳報 全州軍馬 年前十二月二十六日 催發 行五日 而還州作亂 殺逐長吏 因留住 由是 羅界軍亦不發”

101) 『高麗史』 권27, 원종 15년 6월 辛酉 “今年正月三日 伏蒙朝旨 打造大船三百艘 卽行措置 遣樞密院副使許珙於全州道邊山 左僕射洪祿適於羅州道天冠山 備材”

그의 직함이 전주도와 나주도로 이원화될 수 있다.

②는 2장에서 인용한 기사로, 원종 15년(1274) 몽고 황제의 명령으로 선박 건조를 위해 재목을 벌채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이 때 벌목처는 전주도의 변산과 나주도의 천관산이었다. 변산은 扶寧縣에 있으며 부령현은 古阜郡 屬縣이었다가 監務가 설치된 곳이다. 전주도라고 하는 것은 곧 계수관 전주 관할을 나타낸다. 천관산은 長興府에 있으며, 나주도 역시 계수관 나주 관할을 나타낸다.

이들이 각각 그 소속을 전라도가 아니라 전주도와 나주도라고 구분하여 밝힌 것은 계수관 전주 및 나주 관할의 군대를 동원하여 벌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원리는 全州의 司錄兼掌書記로 재임한 李奎報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규보는 신종 3년(1200) 정부의 명으로 변산에서 재목을 벌채하였다. 당시 그가 지은 시를 보면 벌목에 동원한 군대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8천여 보의 거리를 내왕하고 / 來往八千餘步地
46주의 군사를 지휘했네 / 指麾四十六州軍¹⁰²⁾

위에서 46州軍은 전주 관할 군현이 모두 46개인 것에 조용한다.¹⁰³⁾ 곧 이규보는 계수관 전주 관할의 군대를 동원해 재목을 벌채한 것인데, 이것은 원종 15년(1274) 기사에 보이는 전주도에 상응한다.

이처럼 고려의 지방 군사 운용은 계수관 단위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계수관 단위의 道가 설정되었다. 아주해도 입보 역시 이와 같은 구도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당시 남도 지역의 해도 입보는

102) 『東國李相國集』 권9, 正月十九日 復到扶寧郡有作

103) 金皓東, 「高麗 武臣政權時代 地方統治의 一斷面 : 李奎報의 全州牧 ‘司錄兼掌書記’의 活動을 중심으로」, 『嶠南史學』37, 1987, 94-96쪽; 具山祐, 『高麗前期 鄉村支配體制研究』, 혜안, 2003, 192쪽.

모든 주민이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력 부대를 중심으로 입보하여 군사력을 보존하면서 유사시에 출륙하여 전투를 수행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 이 군대는 기본적으로 계수관 단위로 편정되었다. 따라서 입보한 군대가 출륙하여 전투를 벌일 때에도 계수관 단위의 운영 체계가 작동했을 것이다.

충청주도순문사 한취는 아주해도에 들어가 군대를 차출하여 전투에 투입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것은 고종 4년(1217) 전라도에서 군대 징발 업무를 수행한 抄軍別監의 기능과 상통한다. 이 때 군대 징발이 전주와 나주로 나뉘어 이루어진 것처럼 아주해도에서의 군대 운용도 충주 관할 군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한취의 직함도 충주도순문사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주해도에 입보한 군대의 움직임은 충주의 전황과 밀접히 관련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몽전쟁기 충주의 전황을 통해 그러한 의미를 짚어보기로 한다. 충주는 개경에서 남하하여 경상도 방면으로 넘어가는 길목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몽고군이 가장 집요하게 공략한 곳이었고, 남도 지역에서 가장 잦은 전투 기록이 나타난다.

고종 18년(1231) 12월 1차 침입 당시 몽고군이 廣州와 忠州, 淸州로 향하며 지나는 곳이 모두 전멸했다는 기사¹⁰⁴⁾를 통해 충주 방면으로도 공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충주에서 벌어진 구체적인 전황은 열전 기사에 보이는데, 관리와 양반은 도망하고 奴軍과 雜類만 남아 성을 지켰다.¹⁰⁵⁾ 忠州 奴軍은 도주했다 돌아온 관리들의 횡포에 맞서 난을 일으켰는데, 이 난은 世家에서 고종 19년

104) 『高麗史』 권23, 고종 18년 12월 丁巳 “蒙兵向廣忠淸州 所過無不殘滅”

105) 『高麗史』 권103, 列傳16 李子晟 “初 忠州副使于宗柱 每簿書間 與判官庾洪翼有隙 聞蒙古兵將至 議城守 有異同 宗柱領兩班別抄 洪翼領奴軍雜類別抄 相猜忌. 及蒙古兵至 宗柱洪翼與兩班等 皆奔城走 唯奴軍雜類 合力擊逐之”

(1232) 정월의 일로 확인된다.¹⁰⁶⁾ 이를 통해 몽고군의 충주성 공격이 前年 말엽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⁰⁷⁾

몽고군의 충주 공격은 고종 말엽에 특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몽고군이 전국적으로 공격을 가하던 시기였다. 자연 충주가 중요한 공격 대상이 되었다. 고종 40년(1253) 9월에는 忠州倉正 崔守가 金堂峽에 매복했다가 蒙兵이 이르자 공격하여 전과를 올렸다.¹⁰⁸⁾ 당시 몽고군은 也窟이 이끄는 주력 부대가 충주를 포위 공격하고 있었다.¹⁰⁹⁾ 그런데 야굴은 이곳에서 병을 얻었고 곧바로 철군함으로써¹¹⁰⁾ 충주는 포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¹¹¹⁾

당시 전황에 대해 『高麗史節要』에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충주가 몽고군이 포위를 풀었다고 보고하였다. 당시 충주가 포위당한 것이 무릇 70여 일이었는데, 군량이 거의 소진되었다. 防護別監 郎將 金允侯가 士衆을 달래고 독려하기를, “만약 힘을 다한다면 貴賤을 가리지 않고 官爵을 줄 것이다”라고 하며 官奴의 장부를 불태워 믿음을 보였다. 또 포획한 牛馬를 나누어주니 사람들이 모두 죽기로 싸웠다. 몽고군의 기세가 조금 꺾이고 마침내 다시 남하하지 못하였다.¹¹²⁾

106) 『高麗史』 권23, 고종 19년 정월 丙申 “忠州官奴 作亂 宰樞 會崔瑀第 議發兵州之判官庾洪翼 請遣使撫諭 卽以注書朴文秀 前奉御金公鼎 假屬內侍 爲安撫別監 以遣之”

107) 이 당시 방어전이 이루어졌던 충주는 州城으로 파악된다(윤용혁, 앞의 책, 1991, 249쪽).

108) 『高麗史』 권24, 고종 40년 9월 乙酉 “忠州倉正崔守 設伏金堂峽 候蒙兵至 急擊殺十五級 奪其兵仗 與所虜男女二百餘人 以功 除陳正”

109) 『高麗史』 권24, 고종 40년 10월 “是月 也窟等圍攻忠州 前少卿鄭壽 率二子 自京山府來降”

110) 『高麗史』 권24, 고종 40년 11월 “也窟在忠州 得病 卜者曰 久留則難返 也窟留阿母侃洪福源 守之 率精騎一千 北還”

111) 『高麗史』 권24, 고종 40년 12월 壬戌 “忠州馳報 蒙兵解圍”

112) 『高麗史節要』 권17, 고종 40년 12월 “忠州報 蒙兵解圍 時被圍凡七十餘日 兵食幾盡 防護別監郎將金允侯 諭厲士衆曰 若能效力 無貴賤悉除官爵 焚官奴簿籍 以示信 又分給所獲牛馬 人皆效死 蒙兵稍挫 遂不復南”

위의 기사에서 충주가 70여 일에 걸친 포위 공격을 막아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열전 기사에 따르면 당시 김윤후는 忠州山城防護別監에 임명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¹¹³⁾ 전투는 山城이 아니라 州城에서 벌어졌다.¹¹⁴⁾ 위의 기사에서 官奴의 장부를 불태웠다는 것에서 州城에서 공방전이 벌어졌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¹¹⁵⁾

고종 41년(1254) 차라대가 이끄는 몽고군은 충주산성을 공격하였다.¹¹⁶⁾ 그러나 갑자기 비바람이 이는 틈을 타 충주에서 精銳를 보내 공격하였고, 몽고군은 포위를 풀고 그대로 남하하였다.¹¹⁷⁾ 고종 42년(1255)에는 몽고군이 大院嶺을 넘자 충주에서 정예를 보내 공격하여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¹¹⁸⁾

이처럼 몽고군이 계속해서 충주를 공격한 것은 그만큼 이곳이 전략적 가치가 높았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충주 역시 그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야 했다. 특히 고종 40년(1253) 70일간의 포위 공격과 고종 41년(1254)의 공격을 막아낸 충주가 고종 43년(1256)에는 쉽게 함락된 것은 충주 방어 전력의 변화를 짐작케 한다. 바로 이 시기에 충주 군사력 일부가 아주해도로 입보함으로써 충주성의 방어력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¹¹⁹⁾

113) 『高麗史』 권103, 列傳16 金允侯 “後爲忠州山城防護別監 蒙古兵來圍州城 凡七十餘日”

114) 윤용혁은 이 전투를 ‘충주산성 전투’라는 題下에 서술하였으나(윤용혁, 앞의 책, 1991, 284-288쪽), 당시 城內의 상황을 볼 때 州城이 포위된 것으로 판단된다.

115) 이것은 1차 전쟁 때의 상황과 비슷하다. 당시 양반들은 山城으로 피했고 州城은 奴軍과 雜類가 방어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州城-山城의 이원적 방어체계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히 논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116) 윤용혁은 이 충주산성을 德周山城에 비정하였다(윤용혁, 앞의 책, 1991, 308쪽).

117) 『高麗史』 권24, 고종 41년 9월 癸丑 “車羅大攻忠州山城 風雨暴作 城中人抽精銳 奮擊之 敵解圍 遂南下”

118) 『高麗史』 권24, 고종 42년 10월 乙丑 “蒙兵踰大院嶺 忠州出精銳 擊殺千餘人”

119) 이것은 宋君斐가 입보한 長城의 笠巖山城에 대해 장정은 모두 투항하고 노약자만 남아 있었다고 표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모두 주력 부대의 해도 입보로 방어력이 약화된 상황을 반영한다(윤경진, 앞의 논문, 2013①, 56쪽).

고려가 전력 분산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해도 입보를 선택한 것은 이전 방식으로 충주성을 계속 방어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70일간의 포위 때 김윤후의 독려로 몽고군의 예봉을 꺾는 데 성공했지만, 당시에 이미 식량이 고갈되었다. 이후에도 계속 몽고군을 막아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다. 이에 일부 전력을 해도에 입보시킨 것이다.¹²⁰⁾

당시 해도 입보는 모든 전력이 해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산성과 해도에 나누어 들어가 전략적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고종 43년(1256) 초 전라도 방면으로 내려간 군대가 일부는 섬(槽島)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笠巖山城에 입보한 것도 이러한 전략 방안을 반영한다. 이 때 성에 입보한 군사는 성을 지키는 것이 주 임무였다면, 해도에 입보한 군사는 출륙하여 몽고군을 공격하여 진로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

고종 43년(1256)의 아주해도 출륙 전투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고려군은 의도와 다르게 몽고군의 역습으로 전멸하였고, 이들의 진격을 저지할 방어선이 뚫리면서 충주성도 바로 공략을 당한 것이다.

당시 충주는 이전에 주력 부대의 포위 공격까지 막았던 것과 달리 곧바로 州城이 도륙을 당했고, 山城까지 공격을 당하자 官吏와 老弱은 月嶽神祠까지 올라가 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충주성에도 군사력이 있었겠지만, 이전에 비해 크게 약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성이 바로 함락되었던 것이다.

결국 아주해도 출륙 전투는 산성과 해도의 이원적 입보책의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출륙 전투가 효과를 거두면 本城의 방어도 훨씬

120) 남도의 입보 명령은 고종 40년에 시달되었지만, 실제 충주 입보는 야굴의 포위 공격을 경험한 이후로 추정된다. 淸州의 해도 입보는 이보다 늦은 고종 43년 8월에 비로소 이루어졌다(『高麗史』 권24, 고종 43년 8월 庚辰 “遣將軍宋吉儒徙淸州民于海島”).

용이해지지만, 출륙 전투에 실패하면 본성 방어도 쉽게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앞서 大府島別抄의 출륙 전투 또한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아주해도 출륙 전투가 있기 10일 전에 대부도의 별초가 인주 소래산 아래로 나와 몽고군을 습격하여 전과를 거두었다. 이 작전 또한 몽고군의 진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어 몽고군이 더 남하하자 이번에는 아주해도의 군대를 대규모로 동원하여 적극적인 공격에 나섰다. 역습을 당했던 것이다. 당시 출격은 대부도별초의 전과를 다시 노린 것이었지만, 몽고군 또한 그러한 공격에 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역습을 도모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보면 군대가 주둔하며 출륙 전투를 수행한 大府島와 牙州 海島는 같은 섬일 가능성이 높다.¹²¹⁾ 아주해도가 어디인지 그 자체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해도 입보의 일반적 원리를 고려하면 대부도 외의 다른 경우를 생각하기 어렵다.

해도 입보는 바다를 매개로 몽고군의 공격을 차단함과 동시에 고려군이 출륙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안에 인접하고 해로를 통한 교통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섬은 군대와 주민의 출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입보가 곤란하다. 또한 입보는 조건이 좋은 곳에 다수의 군현이 침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야 입보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와 작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 결국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군사 작전의 일환으로 입보가 이루어지는 해도는 연안의 큰 섬을 위주로 설정될 수밖에 없다.¹²²⁾

121) 윤경진, 앞의 논문, 2013①, 51-52쪽.

122) 아주해도에 대해 윤용혁은 仙甘島(윤용혁, 앞의 책, 1991, 115쪽), 혹은 仙藏島(윤용혁, 앞의 논문, 2000, 85쪽)로 보았다. 이 중 후자는 『고려사』 지리지 天安府 연혁에서 천안부 주민이 몽고군을 피해 선장도에 들어갔다는 기사에

이러한 조건은 대몽전쟁 초기에 北界 州鎮의 입보를 통해 확인되지만,¹²³⁾ 남도의 경우도 그 원리는 다르지 않다. 충주 관할의 군대가 입보하고 9척의 배로 동원되는 군대가 머물러 있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섬일 것이다. 그리고 출륙을 통한 작전 수행이 가능한 곳이라면 응당 연안에 인접할 것이다. 아산만 일대에서 이러한 조건을 갖춘 섬은 대부도 외에는 찾기 어렵다. 결국 아주해도는 대부도에 비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각각의 기사에서 대부도와 아주해도로 서로 다르게 지칭된 이유는 무엇일까. 실상 입보와 출륙 과정에서 해도의 명칭을 직접 언급하거나 막연히 ‘섬[島]’으로만 나타내지 않고 ‘牙州海島’로 지칭한 것 자체가 예외적이다. 이는 해당 섬을 인식하는 데 있어 아주가 하나의 준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군대의 출륙 형태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대부도는 당성현(남양도호부)에 바로 인접해 있다. 별초는 이곳으로 바로 나와 북상하여 인주 소래산에서 몽고군을 기습하였다. 따라서 군대 이동에서 선박을 이용한 이동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고, 출륙한 해도의 명칭도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해 아주해도 출륙 전투는 9척의 배를 통해 군대를 보낸 것이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군대가 배를 통해 이동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주해도’라는 명칭을

의거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전략적인 입보가 아니라 특정 주민의 피난 성격을 띠고 있고, 천안부는 충주 관할로서 충주의 입보와는 구분된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다. 한편 강재광은 기존의 비정을 비판하면서 입화도·육도·풍도 중 어느 섬이었으며, 그 중 입화도가 유력하다고 보았다(강재광, 앞의 논문, 2014, 54-56쪽). 그러나 이것은 기존의 비정을 부정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단순한 추정을 넘기 어렵다. 더구나 입화도는 실제 입보가 확인되는 대부도나 압해도에 비해 현격히 작은 규모이고 해안과의 거리도 멀어 실제 군사력이 입보하여 작전을 수행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 남도 지역의 입보 해도 비정은 전략적 여건을 감안하여 다른 입보 사례와 비교하여 유사한 조건을 갖추었는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123) 윤경진, 「고려후기 北界 州鎮의 海島入保와 出陸 僑寓」, 『震檀學報』 109, 2010.

고려하면 이 군대는 대부도에서 남하하여 현 아산만으로 들어와 아주 연안에 상륙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이들이 해도에서 아주를 경유해 나왔기 때문에 그 출발지를 아주해도로 칭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들이 출륙하여 몽고군과 전투를 벌인 곳은 명확치 않다. 다만 당시 몽고군의 진로를 보면, 인주 방면에서 전투를 치른 뒤 남하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충주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의 예상 진로는 안성과 음성을 거쳐 충주로 이어지는 경로로 생각할 수 있다. 고려군이 배를 통해 아주로 상륙한 것은 바로 몽고군이 남하하는 데 대응하여 그 배후를 공격하여 진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비추어 전투 지점은 안성 인근이 될 것이다.

끝으로 지적할 점은 아주해도 출륙 전투 이후 몽고군의 진로 변동이 감지된다는 점이다. 고종 45년(1258) 다시 한번 충주 방면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이 달에 忠州別抄가 朴達峴에 매복하고 있다가 몽고군을 습격하여 사로잡고 있던 人物과 牛馬, 兵仗을 빼앗았다.¹²⁴⁾

위의 전투는 이전의 전투와 다소 맥락이 다르게 파악된다. 통상적인 충주 공격 경로는 안성과 음성을 거쳐 충주로 올라오는 형태가 된다. 그런데 위에서 전투를 벌인 박달현은 忠州와 堤州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여기서 전투를 벌였다는 것은 몽고군이 제주 방면에서 충주로 내려오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곧 몽고군의 충주 공격 경로가 바뀐 것이다.¹²⁵⁾

124) 『高麗史』 권24, 고종 45년 10월 “是月 忠州別抄 設伏朴達峴 狙擊蒙兵 奪所擄人物牛馬兵仗”

125) 당시 몽고군 본진은 窄梁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高麗史』 권24, 고종 45년 9월 庚午 “蒙兵自窄梁 來屯甲申江外 籠絡山野”), 충주 방면으로 내려온 것은 선봉군으로 추정된다.

왜 이러한 변화가 생긴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아주해도 출륙 전투의 영향이 아닐까 한다. 전투 당시 몽고군은 고려군의 진주를 알았기 때문에 역공을 통해 이들을 몰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방면에서 해도에 입보한 군사력이 언제든지 배후를 공격할 수 있음을 경험한 이상, 다시 이 경로를 이용해 충주로 진주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原州와 堤州를 거쳐 충주로 내려오는 형태로 진로를 바꾼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아주해도는 대부도에 비정되며, 출륙 전투는 몽고군의 충주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었을 알 수 있다. 고려는 충주가 몽고의 집중적인 포위 공격을 받게 되자 일부 군사력을 해도에 입보케 하여 산성과 해도를 병용하는 전략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고종 43년(1256)의 출륙 전투는 몽고군이 미리 알고 역습함으로써 고려군이 몰살되었고, 충주도 몽고군의 공격으로 함락되었다. 그러나 해도 쪽의 공격 위협이 확인되자 몽고군은 제주 방면에서 내려오는 형태로 공격 진로를 수정하였다.

4. 맺음말

이상에서는 고려 대몽전쟁기 海島 관련 전투에 대해 槽島의 위치 비정과 牙州海島 出陸 전투의 勝敗 판단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각각에 연계된 전황을 검토함으로써 대몽전쟁의 구체적인 일면도 조명해 보았다. 이를 통해 얻어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槽島의 위치에 대해서는 서해도 소속으로 보는 견해와 전라도 소속으로 보는 견해가 나뉘어 있으며, 각각 椒島와 현 智島에 비정

하기도 한다. 그러나 당시 전황에 비추어 서해도에 비정하는 견해는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우선 초도가 입보처로 활용되는 것은 원종대로서 강화 교섭에 따라 몽고군이 기존의 입보 해도를 접수한 것에 대응하여 이에 반발한 일부 세력이 새로 입보처를 마련한 것이었다. 따라서 원종대 이전에 초도가 입보 해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낮다. 또한 불과 4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槽島와 椒島로 명칭이 다르게 나오는 것도 불합리하다.

초도 이외의 서해도 도서로 보는 것도 무리가 있다. 몽고군이 서해도 서부 연안 도서를 공격하려면 西京이나 海州 방면에서 해로를 이용하거나 내륙으로 서부 연안까지 진출해야 했다. 그런데 서경은 고종 20년(1233) 畢賢甫 등의 반란으로 폐허가 되었고, 고종 46년(1259) 王萬戶가 주둔하며 古城을 수축하고 屯田을 두면서 비로소 거점으로 기능하였다. 당시 왕만호가 전함 건조에 나선 것은 이를 발판으로 서해안 도서 공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해주 방면은 고종 44년(1257) 강화 교섭의 진척에 따라 몽고군이 鹽州로 물러나 주둔하면서 비로소 전략적으로 활용되었는데, 이 시기에 神威島와 昌麟島 공격이 있었다. 몽고군은 黃州와 鳳州, 洞州를 경유하는 岫嶺路를 통해 남진하였고, 전쟁 초기에 信州와 安州에 선봉군이 진출한 것 외에 연안까지 나아간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몽고군의 연안 진출은 고종 46년(1259) 왕만호의 서경 주둔에 수반되어 비로소 나타난다. 이러한 전황을 볼 때 조도는 서해도에 비정하기 어렵다.

반면 조도 공격 이후의 전황은 이곳이 전라도 연안에 있음을 짐작케 한다. 고려는 조도 전투가 있는 지 한 달이 되지 않아 몽고군이 선박을 건조해 해도를 공격하려 한다는 보고에 따라 舟師를

파견하였다. 보고와 대책 마련에 걸리는 시간과 파견된 군사가 남하하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 이 조치가 조도 공격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남하하여 靈光 방면으로 갔으나 몽고군이 대비하자 일부는 섬(槽島)으로 돌아오고 일부는 笠巖山城에 입보하였다. 이에 비추어 조도는 영광 인근의 섬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당시 전황은 몽고군 본진의 위치와도 연관된다. 고종 43년(1256) 중반 차라대의 본진은 전라도 남부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고, 당시 70척의 배를 마련하여 押海島를 공격했으나 실패하였다. 당시 이들이 이러한 규모의 선박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재목을 공급하는 邊山 지역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변산은 李奎報의 글에 보이듯이 고려의 재목 조달처였고, 원종 15년(1274) 몽고의 요구로 일본 원정에 필요한 배를 건조할 때 天冠山과 함께 재목 공급처로 언급된 곳이다. 몽고군은 전라도 방면으로 진출하여 변산 지역을 장악하고 선박을 건조하면서 조도와 압해도를 연이어 공격한 것이다.

몽고군의 서해도 도서 공격은 고종 44년(1257) 개경 인근까지 내려왔던 본진이 강화 교섭에 따라 염주로 물러나 주둔하던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몽고는 신위도를 공격해 함락하였고, 이어 창린도를 공격했다가 패퇴하였다. 당시 몽고군의 해도 공격은 앞서 있었던 전라도 도서 공격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으로, 강화도의 고려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한편 牙州海島 관련 전투는 그 승패 판단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그런데 이 기사문의 문법적 맥락은 고려군의 패전으로 보아야 한다. ‘欲’은 의도를 나타내므로 그 뒤에는 이를 위해 취한 행동이나 의도와 다르게 나타난 결과가 오게 되는데, 아주해도 관련 전투는 후자에 해당한다. 고려군의 공격 의도와 다른 결과, 곧 패전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전투에 이어 동일 기사에 몽고군의 충주 공격과 함락 내용이 이어진다. 한 기사에 보이는 몽고군이 서도 다른 부류일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몽고군은 건재한 것이고, 따라서 고려군이 몰살된 것이어야 한다. 기존 승전론은 『고려사절요』에 이 기사가 둘로 분리된 것으로 인해 별개의 상황으로 보고, 전자를 해도 관련 전투 내지 해전으로, 후자를 산성 입보 전투로 나누어 이해한 결과로 보인다. 아주해도 관련 전투는 몽고군이 배를 타고 와서 전투를 벌일 여지가 없다고 보면, 앞서 있었던 대부도별초의 출륙 전투와 마찬가지로 상륙전으로 이해해야 한다.

패전으로 읽히는 문맥에도 불구하고 승전론을 주장하는 주된 논거는 지휘관으로 판단되는 韓就가 전투 후에도 생존했다는 데 있다. 그러나 忠州道巡問使 한취는 관내를 순행하던 중 정부의 명에 따라 아주해도에 들어가 군대를 차출하여 전투에 보내는 發兵 업무를 본 것이지, 직접 전투를 지휘한 것이 아니다.

당시 순문사는 按察使와 유사한 別命使臣으로서 정부의 통첩을 받아 수령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한취 역시 富城縣尉를 천거한 기사를 통해 순찰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취에 대해 “아주해도에 있으면서”라는 설명을 붙인 것은 그가 군대와 함께 출륙하지 않았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그는 전사할 이유도, 패전의 책임을 질 이유도 없었다.

한편 한취의 본래 직함은 그가 청주 관할인 부성현위의 천거를 행한 것에서 忠淸州道巡問使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그가 전투 기사에 충주도순문사로 나오는 것은 그의 업무가 계수관 충주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고려에서 지방군은 계수관 단위로 편성되어 작전을 수행했으며, 이에 맞추어 각 계수관 단위로 道가 설정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전략적 관점에서 남도의 해도 입보는 대개 계수관 단위로 이루어졌으며, 군사력을 보존하고 유사시에 출륙하여 효과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 이것은 산성 입보와 병행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아주해도에는 충주 관할의 군대가 입보해 있었으며, 충주를 공격하는 몽고군을 저지하기 위해 출륙하여 전투를 수행하였다. 한취는 이러한 충주 관할 군대를 대상으로 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충주도순문사로 나오게 된 것이다.

실제 아주해도 전투는 충주 방어와 연계되어 있었다. 몽고군은 경상도로 넘어가는 요충인 충주를 지속적으로 공격하였다. 고종 40년(1253)에는 몽고군이 충주성을 70여 일 동안 포위 공격하기도 하였다. 충주는 여러 차례 몽고의 공격을 막아냈지만, 포위 당시 성내의 식량이 고갈되는 위기를 맞기도 하였던 데서 드러나듯이 산성 중심의 방어를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려는 군대 일부를 해도에 입보시켜 이원화된 방어 전략을 도모하였다. 산성이 거점을 지키는 방어에 초점이 있다면 해도 입보는 출격하여 적의 진로를 차단하는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전술이었다. 그러나 전투력이 나뉘면서 산성의 방어력이 약화되는 위험이 있었다. 아주해도 출륙 전투는 몽고군의 충주 진주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것이 실패하면서 충주는 州城과 山城이 연이어 함락되는 상황을 맞았다. 그러나 해도에서의 출륙 공격을 의식한 몽고군은 이후 충주 전투에서는 堤州 방면에서 공격하는 전술 변화를 보였다.

아주해도는 해도 입보가 연안 지역의 규모가 큰 섬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대부도에 비정된다. 아주해도 출륙 전투에 앞서 대부도별초가 仁州 방면으로 출륙하여 전투한 일이 있었는데,

이는 아주해도 출륙 전투와 같은 맥락을 띠고 있다. 이 때 대부도가 아니라 아주해도로 기재된 것은 이들이 배를 타고 아산만으로 내려와 아주에 상륙한 뒤 전투에 나섰기 때문이다.

[원고투고일: 2015.3.31, 심사수정일: 2015.5.19, 게재확정일: 2015.5.22]

주제어 : 槽島, 西海道, 全羅道, 牙州海島, 大府島, 忠州, 韓就, 巡問使

<ABSTRACT>

Reexamination of Battles that involved islands(located in the middle of the sea) during the War against the Mongol Invasion forces : Determining the location of the Jo island(槽島), and examining the results of Goryeo troops' amphibious operation which broke out when Goryeo troops returned to the land from A-ju island(牙州海島出陸戰鬪)

Yoon, Kyeong-jin

Examined in this article are the battles that took place over the sea or in coastline areas, between the defending Goryeo forces and the invading Mongol troops, during the early 13th century. The issue became a rather sensitive topic recently, and a renewed perspective of that issue is required.

Previously, “Jodo(槽島)” was believed to have been an island in the vicinity of the Seohae province(西海道), but at that time, Seohae-do was only upon the route that led to the Gaegyeong(開京) capital of Goryeo, and there is no indication that an assault upon the islands was launched from this location. Instead, right after the Jodo battle, in response to the Mongol troops' overall offensive targeting islands in the sea, the Goryeo government dispatched troops to the Jeolla-do(全羅道). Considering such move, and the whereabouts of the Mongol main battalion, it would be reasonable to assume that Jodo was located in a position near that province, which was certainly better equipped and prepared, in terms of supporting the government's defense efforts that would have most definitely included ship building.

The so-called “A-ju island(牙州海島)” battle was not a battle that

took place upon the sea, as it was fought by Goryeo troops which returned (from the island) to the land. And considering other references in key records, which depicted the Mongol troops' continuing offensive against the Chungju(忠州) area, it would be hard to describe the outcome of this battle as a victory for the Goryeo troops. The island in question seems to have been the Daebu-do(大府島), where a rather large military forces composed of Chungju soldiers was stationed. Han Chwi(韓就), the Sunmun-Sa(Provincial Magistrate in the region : 巡問使) of Chungju-do(忠州道), was not a military commander but a civilian official who received an order from the government to secure necessary number of troops for upcoming missions. Shortly after that, Goryeo troops tried to prevent Mongol forces from attacking Chungju, but failed, and as a result Chungju fell.

Key words : Jodo(槽島), Seohae-do(西海道), Jeolla-do(全羅道), A-ju island (牙州海島), Daebu-do(大府島), Chungju(忠州), Han Chwi(韓就), Sunmun-sa(Provincial Magistrate in the region : 巡問使)

